

2025 Vol.23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NEWSLETTER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CONTENTS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2025 Vol.23

발행일 | 2025. 6. 30.

발행인 | 이주열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발행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50834)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PRIME의생명공학관 106호

TEL. 055)320-3216 FAX. 055)320-3207

E-mail. uispc0624@gmail.com

www.uispc.org

인쇄 | 대양프린팅

기고문

- 06 “서울대 138개 만들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속과 확대를 통한 포용적 투트랙 지원의 필요성
세종대학교 교육혁신처장 /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장_ 김희연
- 10 소규모 기독교대학이 바라본 고등교육정책의 지향점
: 형평성, 자율성, 연속성을 중심으로
한국성서대학교 전략기획실 실장_ 권경만

성과사례

- 12 ‘시 기초수학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기초수학에서 전공까지
: 자율전공생의 스마트한 첫걸음
경기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 교수_ 김혜진
- 16 광주대학교 Entrepreneurship 글로벌 챌린지
광주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팀원_ 박현민
- 20 DCU전공설계지원센터를 통한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들의 체계적 지원 사례
대구가톨릭대 DCU전공설계지원센터 연구교수_ 이충원
- 24 [대학혁신지원사업] 2024학년도 취업동아리
대구한의대학교 담당_ 박은주
- 28 함께 만드는 수업, ‘학생맞춤 혁신교수법’
대구한의대학교 교수학습센터 팀원_ 김민지
- 32 작은 전공으로 여는 넓은 세계, NADAUM(나다움) 프로그램
부산외국어대학교 시융합교육센터 직원_ 성세영
- 36 “세상을 밝히는 한 걸음, 마음을 잇는 봉사, 세상을 잇는 사랑”
우석대학교 선임_ 김성호
- 40 융합전공 스테인드글라스템페라 해외작가 초청 워크숍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그리스도교미술학과 학과장(융합전공 전담 전임교수)_ 정수경
- 44 차의과학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 ‘두잇’ 운영
차의과학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원_ 최민주
- 48 한남디자인팩토리 - 전공의 문(門)을 허물고 혁신의 문(閤)을 열다
한남대학교 한남디자인팩토리 과장_ 안형준



16

52 한서대학교 산학협력 기술개발을 통해 6년 연속 총 24개 CES 혁신상 수상
한서대학교 HS혁신지원사업단 교수(HS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_ 박창해

54 한서대학교 특성화 구조개혁 사례
한서대학교 인재개발본부 교수(인재개발본부장)_ 김웅이

58 한서대학교 ESG 선도 모델 제시
한서대학교 기획예산처 성과혁신R센터 팀장_ 최일석



32

학생사례

62 대학혁신지원사업 제1회 전공박람회 참여 후기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학생_ 김여민

64 CES 2025,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과 사람을 잇다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공학과 학생_ 박주열

66 2024학년도 학부생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
우수연구자 참여 학생 인터뷰 공유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부생_ 안하정

68 2024학년도 국제협력 해외봉사 외성챌린지 프로그램 감상문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학생_ 진경열

72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함께한 성장 여정:
밝은 미래를 꿈꾸는 창의적 엔지니어로
울산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전기전자공학 재학생_ 박건후

76 작은 변화가 불러오는 나비효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재학생_ 박나영

80 함께 빛나는 길, “빛길” 봉사단에서 찾은 배움과 성장의 가치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봉사단 “빛길” 단원_ 김윤아

84 융합 예술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대학혁신 서포터스 ‘추비즘’ 창단
추계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4학년_ 도지윤



40



68

행사소식

88 1인미디어 맞춤 플랫폼, 「Boo's Booth (BB)」 본격 운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지원팀 담당_ 박정민

인사말

Greetings



총괄협의회 회장, 남서울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단장

이주열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는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을
최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회장 이주열입니다.

총괄협의회 소식지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소식지는 3주기 총괄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첫 번째 발간되는 것으로 기고문,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사례, 5개 권역별 회원교 소식, 총괄협의회 활동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부터 향후 3년간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목표는 대학별 자율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및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이며,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교육혁신, 적정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세부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3주기에는 138개 대학이 참여하며, 그간 대학의 자율혁신 성과를 기반으로 교육·연구 분야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사업비 운용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 규제가 최소화되어 대학의 집행 자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는 각 대학 개별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체 발전 전략에 따라 AI 대전환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및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습자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회원교 간 정보교류 및 협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총괄협의회는 대학의 새로운 가치와 역할을 모색하는 일에 모든 회원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매년 총 5회 총괄협의회 소식지를 발간하여 회원교 간 정보교류를 지원하겠습니다. 총괄협의회 소식지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138개 만들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속과 확대를 통한 포용적 투트랙 지원의 필요성



김희연

세종대학교
교육혁신처장 /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장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지역 격차의 심화, 그리고 세계 대학과의 경쟁이라는 다중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은 그간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던 각종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CK사업, PRIME사업 등)의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 주도의 자율혁신을 기조로 한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통합·재편되어왔다. 그렇기에 이전 정부가 고등교육특별회계로 확보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확충은 정부의 예산 투입 실효성 평가에 따른 가장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2025년 5월 현재 이미 3주기로 진입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국립대학과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4년제 일반대학 전국 183개교 중 138개교가 사업비 수혜 대상이며,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과 수도권의 교육 생태계를 함께 성장시키는 위기 속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및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는 정부의 재정 효율화 기조 속 고등교육 예산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더해져, 일반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총예산의 삭감이 현실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운 이후 시작된 등록금 동결 정책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약 17년간 이어졌고, 급격한 사회변화와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이 심각한 재정난이라는 덮에 발목을 잡힌 상태에서, 그나마 숨통을 터주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행방은 전국 138개 일반대학 관계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특히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국립대학보다 월등히 높고 수도권 비수도권보다 높기에 글로벌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RISE사업 규모도 작은 수도권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확보 경쟁은 흡사 불나방을 불사할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3년 대학정보공시를 기준으로 전국 대학의 재적학생 수 중 국립대학 재적학생 수는 22.4%에 불과하나 사립대학은 77.6%를 차지한다. 이는 사립대학의 발전이 국민에게 제공되는 고등교육의 질 확보와 직결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한편, 세계대학 랭킹 1000위권을 비교하면 2025년 기준 국립대학 8개 중 5개가 공학계열

**정부가 21세기에 걸맞은 고등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지역 협력 기반으로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이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수목적 소규모 대학인 반면, 사립대학은 11개에 불과하고 모두가 대규모 종합대학이며, 연구역량이 높은 대학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역량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새로운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큰 그림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민에게 질 높고 평등한 맞춤형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수 대학 키우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을 막론한 대학별 특성화 기반의 자율적 자체 역량 키우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만약 고등교육 재정이라는 제한된 파이에서 소수 대규모 국립대학에 정부예산 배정이 쏠리고 그 여파로 수도권 및 지방에 분포한 일반대학 다수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위축된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대학사회의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공약의 추진력은 전국 대학의 공통된 신뢰와 협력을 전제로 지역별 국립 거점대학 육성과 더불어 다수의 대학 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포용적 투트랙 지원 정책”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다수의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내부 역량을 기르고 생산적인 경쟁을 통해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장 기반의 정부 지원과 관리 강화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이다. AI의 발전과정에서 인간이 사전에 설정한 도식 학습시키기를 포기하고 AI에게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여 학습시킴으로써 AI 시대가 도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대학의 발전과정에도 강력한 영감을 준다. 정부가 주도하여 사업의 목적을 설정한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들이 미미한 성과를 거두는 데 머문 반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그 어떤 재정지원사업보다도 정책 의도를 뛰어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비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학 혁신지원사업비를 등록금 보전 정도로 바라보고 2025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전국 4년제 대학의 약 70%, 사립대학은 약 80%)에는 사업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사립대학의 입장에서는 교비 회계로 지급되어 재정 운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유일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다. 게다가 자율혁신 계획과 성과평가에 기반하여 과거 그 어떤 재정지원사업보다도 대학 교육의 질 향상 및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등록금 보전의 의미를 넘어 명실공히 ‘대학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기존의 정책 방향의 기조를 유지하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운용의 건전성 평가를 강화한다면 대학 운영의 안정성과 정부 정책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과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건비(25%) 및 경상비(10%) 비율 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하되, 나눠주기식에 머물지 않도록 회계 부정(부적정 집행사례)에 대한 조치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부실대학의 점진적 퇴출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발전 80년을 돌아보면 국민의 교육열과 대학교육이 짝을 이룬 이인삼각 경주에서의 눈물겨운 노력과 기여가 있다. 지금껏 이 나라를 일으킨 것이 서울대라는 하나의 대학이 아닌 것처럼, 앞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갈 대학은 지방의 10개 서울대로 상징되는 소수 대학만이 아니다. 정부가 21세기에 걸맞는 고등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지역 협력 기반으로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이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 거점 국립대 10개 육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추진함과 더불어 전국의 138개 대학이 자신의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울대가 되어가도록 포용적 지원을 확대해 가야 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의 역량을 키우고 우수 해외 인재 유치와 정주를 도모할 교육 강국으로서의 국가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고등교육 투자 확대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다시금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단지 재정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학이 각자의 사명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정부는 사립대학을 신뢰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파트너이자 자율적 대학혁신 모델 창출의 소중한 자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사업의 지속적 확대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서울대 138개 만들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속과 확대를 통한
포용적 투트랙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기독교대학이 바라본 고등교육정책의 지향점: 형평성, 자율성, 연속성을 중심으로



권경만

한국성서대학교
전략기획실
실장

최근 탄핵 인용 이후 6월 3일 치러질 대선을 바라보며 차기 정권이 추구하게 될 고등교육정책의 이념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문 앞에 서게 된다. 사실 수도권 소규모 기독교대학의 입장에서 우리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권의 교육정책 이념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던지고 싶었다.

1. 형평성과 경쟁력: 공존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정책은 오랫동안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을 오가면서 형평성과 경쟁력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둘이 대립적으로 이해되거나, 특정 정권 이념에 따라 일방적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곤 했다. 그러나 소규모 기독교대학인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없이는 경쟁력 자체가 논의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에 위치한 한국성서대학교는 '복음전도자 양성'이라는 기독교적 사명을 실천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고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놓치지 않고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같은 형평성 기반 정책의 지속적 확대가 절실하다. 아울러, 소규모 대학이 가진 자원을 바탕으로 한 특성화된 교육 분야(예컨대, 인성교육, 지역사회 봉사, 기독교적 리더십 양성 등)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지원체계가 보다 유연하고 다양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대학규모와 공시지표라는 정량적 요소만을 통해 대학을 평가하는 방식은 소규모 대학의 존재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질, 공동체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형평성과 경쟁력을 함께 추구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II. 국가 주도 정책과 대학 자율성: 균형 잡힌 동반자 관계에서...

고등교육정책에서 국가주도와대학자율성은 병존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해야 함이 마땅하다. 정부의 일률적 규제는 우리와 같은 소규모 사립대학을 정책적 시각지대로 내몰 수 있으며, 반대로 대학 자율성만을 강조할 경우 사회적 책무성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학에게 큰 틀의 방향성과 지원 원칙을 제시하되, 대학 각자의 설립 이념과 특수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2019년도부터 시작되어 이제 3주기(2025~2027년)에 접어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우리 대학 입장에서 고마운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경우, 형식적 요건 충족이 아니라 '대학 고유 미션의 성취'라는 본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지원·평가하는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 이는 소규모 대학의 생존을 넘어 고등교육 다양성과 질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III.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예측 가능한 혁신을 위하여...

소규모 대학은 행정, 재정, 인력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과거 주요 대학지원사업이 명칭만 바뀌면서도 실질적 내용은 유사했던 사례(예컨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 ACE/CK/PRIME/LINC → 대학혁신지원사업)는 대학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피로감을 초래한 바 있다. 참고로 우리 대학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6년 연속 선정되었지만 이후 ACE 사업은 7번 낙방했다.

정책 변화는 시대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지만, 변화가 있을 때는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보장하여 대학이 예측 가능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 정책과 새로운 정책의 연계성을 명확히 설명하는 '정책 연속성 기제'가 작동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 대학과 같은 소규모 대학이 핵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혁신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때, 대학은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 비전 아래 교육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맺으며

형평성과 경쟁력, 국가 개입과 대학 자율성, 변화와 연속성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와 균형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기독교대학은 이러한 균형 위에서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에 놓여 있다. 차기 정권의 고등교육정책이 대형, 수도권 중심의 금수저 논리만을 넘어, 다양한 대학 생태계의 특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길 기대한다. 그 가운데 우리 대학은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지역을 살리는 “작고 강한 대학”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AI 기초수학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기초수학에서 전공까지: 자율전공생의 스마트한 첫걸음



김혜진

경기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 교수

추진 배경 및 목적

‘전공자율선택제’의 도입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학문 분야를 경험한 뒤 스스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수학적 사고와 분석이 요구되는 전공에 원활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초수학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비교과 학습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초역량 강화는 전공 선택 이후의 수업에 원활히 적응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이 되며,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 선택 이전 단계부터 기초수학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중요하다.

운영 내용

경기대학교는 자율전공 입학생들이 전공을 탐색하고 학업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수학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수학과 교수진이 참여하여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내용을 기반으로 한 기초수학 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였고, 각 학과 및 전공에서 요구하는 수학 수준과의 매핑을 통해 전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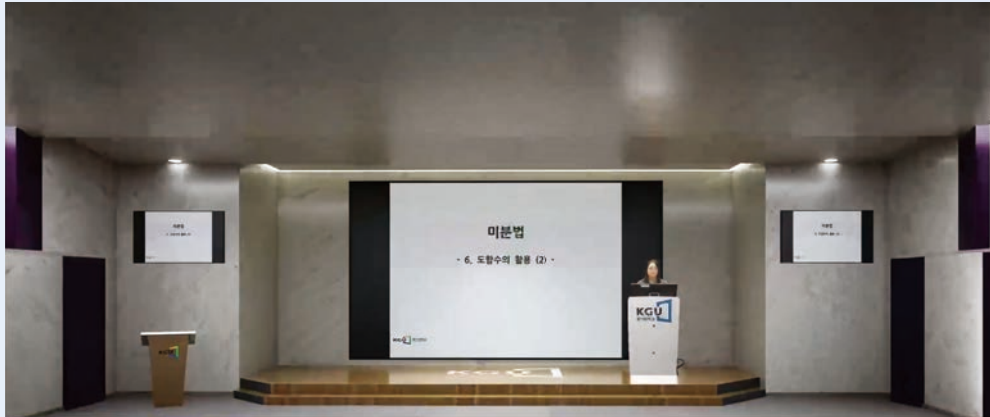
기초수학의 다양한 활용 영역을 반영하고, AI 기반의 학습 분석 및 피드백 기능을 포함한 ‘AI 기초수학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플랫폼의 효과성과 실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PILO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통해 학습 효과와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콘텐츠와 플랫폼 기능을 보완·재설계한 뒤, 2025학년도 무전공 신입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후 자율전공 학생들의 전공 선택 및 학업 적응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환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무전공 입학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초 학습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 영상 콘텐츠 제작(경기대학교 XR 스튜디오)



▲ (2025 예비대학) AI 기초수학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소개



[자유전공 대상]
기초수학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안내

AI

2025학년도 1학기

AI 기초수학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자유 전공 신입생 대상

희망 전공별 요구되는 기초수학 학습을 통해 전공 선택에 도움 지원




KGU 경기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안녕하세요, 경기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입니다 📢

KGU AI 기초수학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자유전공 입학생의 수학 영역별 개인 수준 점검과 자체 제작 콘텐츠 및 AI 추천학습을 통해 기초수학 능력을 향상시키고,

희망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수학 범주를 확인하여 추후 전공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진단 평가 및 학습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AI 기초수학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홍보

The screenshot shows a grid of 8 course cards for '기초수학' (Basic Mathematics). Each card includes a title, a progress bar, and a '문제 보기' (View Questions) button. The courses 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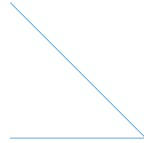
- 1회차 다항식의 연산과 항등식 (3/3 problems, latest update: 25.03.25)
- 2회차 나머지정리의 인수분해 (3/3 problems, latest update: 25.03.25)
- 3회차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3/3 problems, latest update: 25.04.01)
- 4회차 이차함수 (3/3 problems, latest update: 25.03.31)
- 5회차 여러 가지 부등식 (0/3 problems, latest update: 25.02.14)
- 6회차 평면좌표 (0/3 problems)
- 7회차 직선의 방정식 (0/3 problems)
- 8회차 원의 방정식 (0/3 problems)

▲ 전공 및 영상 콘텐츠(45개) 매핑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평가 관리' (Evaluation Management) interface. It includes a table with the following data:

유형	상태	평가명 / 기간	회차	제출 / 응시 / 예정 인원	제출 / 응시율	Buttons
진단평가	종료	2025 경기대 진단평가 [기초수학] 2025.02.17 09:00:00 - 03.31 23:59:59	1 2	468 / 468 / 499명	93.8% 93.8%	결과 확인
진단평가	진행 중	2025 경기대 2차 진단평가 [기초수학] 2025.04.01 00:00:00 - 05.29 23:59:00	1 2	39 / 39 / 592명	6.6% 6.6%	결과 확인

▲ 2025학년도 시 기초수학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 현황 (1차, 2차)



‘SI 기초수학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기초수학에서 전공까지: 자율전공생의 스마트한 첫걸음

▣ 운영 결과

전공자율선택제의 도입은 대학 교육의 유연성과 학생 주도의 전공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변화이지만, 동시에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대학교는 비교과 활동과 연계한 기초수학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자율전공 입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시행 및 운영까지, 내부·외부 협력 부서와 전문 업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SI 기초수학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위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구축되었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학습 콘텐츠 제공을 넘어서, 자율전공 학생들이 수학적 기초역량을 체계적으로 쌓고 전공 선택에 필요한 기반 지식을 스스로 진단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시행 운영 단계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에 맞춰 제작된 영상 콘텐츠가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대학교 수학과 교수진이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영상은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고, 학생들이 대학 수학에서 필요한 핵심 영역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에 이어서 전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플랫폼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했다.

2025학년도 자율전공 입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탐색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해당 연도 자율전공 입학생 전원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습을 진행 중이며, SI 기초수학 학습능력 증진 활동과 더불어 전공 탐색을 위한 상담까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은 자율전공 입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공을 신중히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정 학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 개개인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광주대학교 Entrepreneurship 글로벌 챌린지



박현민

광주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팀원

추진배경

광주대학교는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Entrepreneurship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개방과 세계화 가속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주체로서, 글로벌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Entrepreneurship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국제 경험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광주대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추진내용

광주대학교 「Entrepreneurship 글로벌 챌린지」는 글로벌 탐방형 프로그램으로, 참가자의 글로벌 감각과 실전 경험을 키우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각 팀은 탐방 주제와 계획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팀은 지도 교수와 함께 일정에 맞춰 다양한 기관에 방문하여 각 팀의 주제에 맞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2025학년도 「Entrepreneurship 글로벌 챌린지」를 지원한 팀은 총 70개 팀이며, 이 중 36개 팀이 서류 심사를 통과하여 면접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로, 앞으로 더욱 활발하고 의미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이 기대된다.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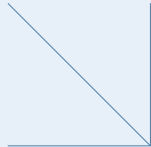
2024학년도 「Entrepreneurship 글로벌 챌린지」를 통해 학생들은 일본·호주·말레이시아·몽골 등 해외 현지에서 각 학과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사전에 계획한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학생들은 현지 기관을 직접 섭외하고 계획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진로에 대한 통찰을 깊이 있게 다질 수 있었다.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 학생 71명 전원이 참여하였으며, 만족도 점수는 4.82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Entrepreneurship 글로벌 챌린지 사진

브루나이, 락사마나경영대학(LCB) 방문 및 영어 인터뷰 진행





일본, 건국 유치원
(한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인형극 공연 진행



▣ 참여 후기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학교와,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의 촬영 활동과 지속된 워크숍, 크리틱을 통해 팀원들의 사진 및 영상 촬영 실력이 날마다 향상되는 것이 눈에 보여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더욱 많아지고 활발히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 라오스, 팀플리쳐(사진영상학과) 노○○ 외 7명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글로 읽는 공부보다 실제로 체험하며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학습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이론적 지식 습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한 기억이 훨씬 더 강렬하고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익한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말레이시아, 말레지마!(소방행정학과, 국방기술학부) 고○○ 외 4명

▣ 향후계획

광주대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세계 무대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직접 체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지식 습득뿐만이 아닌 실천적 지혜와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해외 국제 콘퍼런스 참가, 글로벌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광주대학교는 학생 중심의 글로벌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국제적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DCU전공설계지원센터를 통한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들의 체계적 지원 사례



이충원

대구가톨릭대
DCU전공설계지원센터
연구교수

추진 배경

- ▶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도입에 따른 모집 및 등록 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향후 정부정책 등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확대 분위기 조성
- ▶ 전공자율선택제 모집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자기이해, 전공탐색 및 설계, 학습역량 향상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및 전담인력 배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마련
- ▶ 전공자율선택제 모집 학생들은 소속감과 정체성 부재로 전공결정, 기초학력,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향후 학생들의 중도이탈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추진 내용

- ▶ 전공자율선택제 모집 학생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DCU전공설계지원센터) 신설 및 전담인력 배치로 교내 유관부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
- ▶ 입학 전부터 전공선택까지 전공자율선택제 이해 → 학생선호도 파악 → 자기이해 → 전공탐색 → 전공설계 → 최종 전공결정의 프로세스에 따른 학생 관리·지원 체계 구축
- ▶ 사전 선호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희망 전공, 전공결정 수준, 요구 등을 분석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교내 유관부서(학생상담센터, Academic Advisor(전공상담교수), 자율전공학부 등)에 정보 제공
- ▶ 전공탐색 및 설계, 학습역량, 대학생활 적응을 중심으로 한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전공자유선택제 모집 학생 관리·지원 로드맵

- 학생 모집
- 재학 중

1 입학(제도 이해)

- ① 입시설명회, 전공가이드북
- ② 전공자유선택제 모집 (자유전공학부, 단과대학 통합모집)
- ③ 자율전공학부 책임교수 배정

3 자기이해

- ① e-Advisor 전공 및 진로추천
- ② 전공설명회 개최, 학과별 전공 설명 영상 시청
- ③ 학생상담센터 상담(성격검사, 진로적성검사, 학습진단검사)
- ④ 취창업전문관 상담(직업적성검사/직업선호도검사)
- ⑤ 지도교수, Academic Advisor(전공상담교수), 타전공교수 상담
- ⑥ 학생 핵심역량 및 혁신역량 진단

5 전공선택

- ① e-Advisor 전공 및 진로추천
- ② 전공 및 진로에 기반한 대학생활 목표 설정 (STEP-UP 경력관리시스템 활용)
- ③ 전공 - 진로 연계분야 진출계획 및 관련 활동
- ④ 관심분야 필요역량 파악 및 역량개발
- ⑤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개선 및 보완

2 학생 선호도 파악

- ① 사전 선호도 조사
- ② 전공설계지원센터 선호도 분석 및 결과 공유
- ③ 자율전공학부 책임교수 배정
- ④ Academic Advisor(전공상담교수) 배정

4 전공 탐색 및 설계

- 전공필수 대가진로길라잡이
- 전공선택 전공설계 워크숍, 단과대학별 전공탐색
- 교양필수 인성캠프, 독서와 토론, AI-SW, 외국어
- 교양선택 학문(계열)기초, 자유교양융합입문, 진로코칭
- 인성교육(HUE, 한티아고 등)
- 비 교 과 ① 전공탐색 및 설계 : 전공설명회, 진로캠프, 자율전공 멘토링, 내 전공 찾기 프로젝트, Major Discovery
- ② 학습역량 : 학습법 특강, 린투런 학습컨설팅, 학문분야 탐색 방법
- ③ 대학생활 적용 : 자율전공소모임, 사례동행프로그램, 자원봉사입문특강

지원 전략

전공탐색 및 설계

- 전공 설명회, 특강, 진로캠프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전공 탐색 기회 제공
- Academic Advisor(전공상담교수)를 40개 전공에 각 1명씩 위촉하고,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상담 등의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방위적으로 기회 제공

학습역량 향상 지원

- 기초학습능력과 창의융합역량 강화를 고려한 교과목 개설 운영
-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 향상과 개인 맞춤형 학습 컨설팅 실시

대학생활 적응 및 소속감 강화

- 사제 간, 선후배 간, 또래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학생활 적응 촉진 및 소속감 강화
- 사회적지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DCU전공설계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자율전공학부, Academic Advisor(전공상담교수) 등 유관부서를 중심으로 전공탐색 및 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상담 지원

추진 성과

전공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전공자율선택 모집인원 확대

- 자율전공학부 모집인원 확대('24학년도 49명→'25학년도 60명)
- 단과대학 통합모집 등록인원 증가('24학년도 408명→'25학년도 540명)

전공자율선택 모집 학생들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및 전담인력 배치

-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전공 설계 지원과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 전담기구 「DCU전공설계지원센터」 신설 및 전담인력 배치

전공·진로탐색 기회 확대 및 체계적인 학생 관리·지원 체계 강화

- 단과대학 통합모집 학생들을 위한 전공탐색 교과목(2개) 신설: 「바이오메디전공탐색」, 「사회과학전공탐색」
- 자율전공학부 책임교수 및 Academic Advisor(전공상담교수) 배정
- 지도교수 및 타전공 교수의 1:1 대면 상담 활성화를 통한 학생 관리 및 지도 강화





DCU전공설계 지원센터를 통한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들의 체계적 지원 사례

전공탐색 및 소속감 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전공설명회	전공선택 선호 학과(24년 9개 학과, 25년 16개 학과) 학과장 참여, DCU 전공사전(학과소개, 교육과정, 졸업후진로, 취업현황 등) 배부
진로캠프	개인의 성향 및 강점 파악을 통한 자기이해 향상, 진로탐색 역량강화 및 진로방향 설정 지원
Major Discovery	진로심리검사: 마이어스-브릭스 성격유형검사(MBTI® Form Q), 다면적진로탐색검사(MCI)
Read me, Lead Me !	독서를 통해 자율전공학부생들의 적성, 흥미,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기 주도적 전공설계 지원
내 전공을 위한 학습분야탐색비법	학술정보 검색방법과 국내외 DB를 활용한 학문/연구 트렌드 파악, 분야별 논문 요약방법 지원
DCU 참인재 캠프	(입학 전) 전체 신입생 대상,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및 선후배 교류를 통한 소속감 강화
꿈(Cum) 인성캠프	(입학 후) 학과별 신입생 대상, 체험 중심의 ESG 인성교육을 통한 자기 탐색 및 학과 소속감 강화
사제(師弟)동행	(입학 후) 연 1회 실시, 지도교수와 학생들 간의 친목 활동을 통한 유대감 형성 및 소속감 강화
Dream High 토크콘서트	총장과 재학생들의 소통을 통한 소속감 증진, 우수 대학생활 사례 공유를 위한 토크콘서트
자율전공 멘토링	전공선택 가능한 학과의 선배와 멘토링 활동으로 전공탐색, 학교생활 적응 지원
자율전공 소모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의 소모임 활동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또래간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
내 전공 찾기 프로젝트	관심있는 전공의 Academic Advisor(전공상담교수)와 전공에 대한 심도있는 탐색 지원

향후 추진전략

전공 탐색 및 설계 지원, 중도 이탈 방지를 위한 지원, 학생 진단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

- 전공탐색 기회확대를 위해 전공박람회를 신설 운영하고, 전공설계 교과목, 전공설계 공모전 등의 지원 규모 확대
- 사회적지지 네트워크 체계 고도화 및 지원 확대
- 지속적인 학생 특성 파악을 통한 중도이탈 위험성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 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
- 전공 선택 이후 학생들의 성공적 전공 안착을 위해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대학혁신지원사업] 2024학년도 취업동아리



박은주

대구한의대학교
담당

추진 배경 및 목적

- ▶ 공통된 목표를 가진 재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동아리 결성 및 운영으로 '학생 주도형' 취업지원
- ▶ 공동 취업준비를 통한 취업정보 공유와 취업준비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효율적인 취업준비
- ▶ 모듬별 취업역량강화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등 직장생활에서 필수적인 직업기초능력 향상

추진내용

- ▶ 기업·직무·자격증 취득별 목적에 맞게 코스 선택가능(기간에 따라 활동비 지급 금액 상이)
 - 풀코스(1~2학기) : 자격증 취득, 공무원/공기업/대기업 취업준비, 해외취업준비
 - 하프코스(1학기) : 직무 및 기업분석, 공모전 및 대회출전, 입사서류 및 면접준비, 실습 등
 - * 목표달성 가능 여부에 따라 코스는 변동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예: 하프코스 기간 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 경우 하프코스 가능, 실습이 1년 동안 진행될 경우 풀코스 가능)
 - * 하프코스는 2학기 계속 운영 희망할 경우 사전에 미리 협의(평가)하여 풀코스로 변경 가능
- ▶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활동하되 동아리별 지도교수 지도하 운영
- ▶ 취업동아리 활동비는 법인카드 수령 사용 후 영수증 및 증빙자료(활동일지) 필수 제출
 - * 취업동아리 활동비 지원 가능 여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집행기준에 따름
- ▶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중간평가, 성과공유회 및 수료식 실시
- ▶ 동아리별 목표 맞춤형 취업전문가에 의한 진로 및 취업컨설팅 실시
- ▶ 동아리 운영 평가를 통한 활동비 조정 및 우수동아리 선정

추진성과

- ▶ 취업(10명), 실습 및 인턴(11명/11건), 자격증 취득(44명/57건), 교내외수상(8명/11건) 등 다방면 성과창출(2024.12.26기준)
- ▶ 동아리 목적에 따라 하프코스(1학기), 풀코스(1~2학기) 단위로 구분하여 운영 효율성 강화
- ▶ 자율적인 목표설정 및 동아리 운영을 통한 자기주도적 취업역량강화
- ▶ 취업전문가를 초청하여 동아리 목표에 따른 취업컨설팅 제공으로 취업목표수립 및 동기부여, 운영방향성 제고

프로그램 소개 이미지



▲ 수료식



▲ 오리엔테이션

▮ 성과환류 및 향후 일정

- ▶ 취업동아리 운영 성과분석 회의 개최를 통한 운영 효율성 강화 및 성과환류
 - 취업동아리 운영 성과분석 내·외부 컨설턴트 위촉
 - 1차: 2024.3.18.(월), 2024학년도 취업동아리 선정 평가
 - 2차: 2024.6.11.(화), 하프코스 동아리 성과평가 및 우수팀 선정
 - 3차: 2024.11.18.(월), 풀코스 동아리 성과평가 및 우수팀 선정
 - 4차: 2025.1.6.(화), 2024학년도 취업동아리 최종 성과분석 및 피드백, 개선사항 도출
- ▶ 성과분석 회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2025학년도 취업동아리 기획 및 운영

추진시 고려사항

▶ 동아리 활동비 사용 교육 필수 실시

- 참가 학생들이 취업동아리 활동비(사업비) 사용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여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교육 필요
-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 실시, 활동비 사용법 워크북(자료) 제공 등

▶ 다양한 학부(과) 참여를 위한 적극 홍보 필요

- 학부(과)별 공문발송, 취업전담교수 회의 시 안내 등 다양한 학부(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전교적 취업준비 분위기 확산

▶ 취업동아리 우수사례 발굴 및 활용 필요

- 취업동아리 참여자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향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시 우수 취업자 멘토로 활용, 취업 선순환 구조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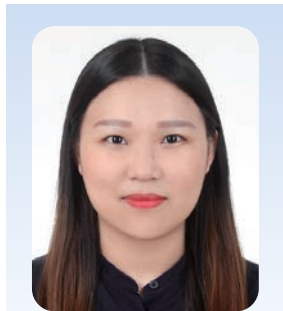
소요 예산

재원	영역	프로그램명	지출 내역	예산액(원)	집행액(원)	집행율(%)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교육	취업동아리	취업동아리 활동비	15,000,000	10,694,463	93.3
			취업동아리 운영비		3,304,150	
		취업동아리 운영 성과분석 회의	성과분석 회의 (1차)	1,000,000	60,000	100
			성과분석 회의 (2차)		425,000	
			성과분석 회의 (3차)		60,000	
			성과분석 회의 (4차)		455,000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함께 만드는 수업, ‘학생맞춤 혁신교수법’



김민지

대구한의대학교
 교수학습센터
 팀원

추진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온라인 강의 환경에서 벗어나 대면 강의로 점차 바뀌게 되면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4학년도 교수역량강화를 위한 수요 및 개선 요구 조사 결과를 보면 교수자들은 다양한 교수방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교육부와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에서도 PBL, 플립러닝 등과 같은 혁신적인 교수법의 적용 확대 및 에듀테크 기반의 교수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교수자들이 다양한 혁신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학생맞춤 혁신교수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PBL, 플립러닝, 하이브리드 등과 같은 혁신교수법을 수업에 적용하여 교육의 내실화 및 교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과 교수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추진내용

수업 목적과 내용에 적절한 혁신적이고 트렌디한 교수법을 4가지 유형(플립러닝, XBL, PBL, 하이브리드)으로 나누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형	구분	주요 내용
1	플립러닝 (Flipped Learning)	- 학생들이 수업 전 미리 교재나 강의를 통해 사전학습을 한 후 강의실에서 사전학습을 바탕으로 심화나 응용하는 학습법
2	XBL	- 팀티칭, 액션러닝, 하브루타, 토의 수업 등 다양한 교수설계 교과목 및 STEAM과 같은 창의 융합형 교과목 지원

유형	구분	주요 내용
3	PBL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중심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찾고, 팀을 이뤄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학습방법 - 효과적 지원을 위한 수강인원대상 실험실습비 지원
4	하이브리드 (Hybr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수업과 실제 교실에서의 수업을 결합하여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고 유연성을 높이는 학습법으로 에듀테크(게더타운 등)를 활용하여 운영

플립러닝
(Flipped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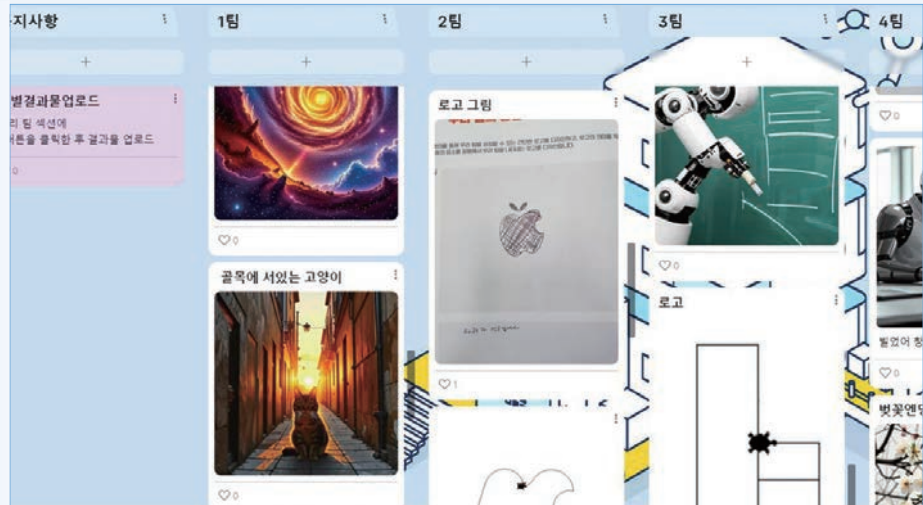
XBL



PBL UP



하이브리드 (Hybrid)



추진성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학생맞춤 혁신교수법’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20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총 지원 교과목 수는 407과목이며, 평균 만족도는 4.67 점을 달성하였다. 그 중에서도 2024학년도에는 총 129과목(플립러닝 14과목, XBL 3과목, PBL UP 111과목, 하이브리드 1과목)을 지원하였으며, 평균 만족도는 4.79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매 학기별 우수교과목을 선정하여 시상식을 진행하고, 우수교과목 자료집을 제작한 후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향후계획

각 유형별 성과분석 및 콘텐츠개발, 결과보고서 등 지속적인 질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교수법 활용의 안착과 확대를 위해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PBL, 플립러닝, 에듀테크 러닝과 같이 수업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수법 유형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그 중에서도 PBL 같은 경우에는 질 관리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집중 관리 교과목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작은 전공으로 여는 넓은 세계, NADAUM(나다움) 프로그램



성세영

부산외국어대학교
시용합교육센터
직원

추진 배경 및 목적

NADAUM(나다움) 프로그램은 장순홍 총장님의 PSC(Problem-Finding & Solving, Self Learning, Collaboration) 교육 철학 실현과 마이크로전공의 활성화 및 실천적 학습 기회의 확대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실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전공 역량과 글로벌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협업과 탐구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마이크로전공의 심화학습은 물론 진로 탐색과 역량 강화의 기회를 함께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 내용

‘NADAUM 프로그램’은 나다움, 나를 통해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라는 뜻으로 교내 프로그램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명칭이 선정되었습니다. (NADAUM: Navigate: 문제를 찾기 위해 “길을 찾다”, Advance: 해결을 위해 “발전, 전진”, Discover: 스스로의 문제를 “발견하는”, Agree: “의견”을 함께 나누는 활동, Universal: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 Micro: 마이크로전공을 통한 활동)

NADAUM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전공 수강생과 우리 대학 재학생이 팀을 이루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참여 학생은 반드시 해당 학기에 마이크로전공을 수강 중이어야 하며 이수 내용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참가팀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방향 중 해외 현지에 파견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수행 후에는 결과보고서, 소감문과 함께 약 10분 분량의 수행 영상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성과 공유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됩니다.

운영 성과

NADAUM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전공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학습 경험과 현장 중심의 실천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PSC 관점에서 지역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해결안을 설계하는 과정은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사고력 함양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2024년에는 총 9팀, 18명의 학생들이 NADAUM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파견되었습니다. 각 팀은 마이크로전공의 특성과 연계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시야를 확장했으며, 결과물 또한 보고서와 영상으로 구체화되어 다양한 교육성과 공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임크리에이터전공

중국 '에워과기회사'
방문하여 부사장과
인터뷰 진행



마케팅데이터 사이언스전공

홍콩폴리텍대학 방문하여
인터뷰 진행



글로벌어린이교육전공

토론토 Northern District 도서관 사서와 인터뷰



글로벌다문화전공

현지인들과 함께 Zero Plastic 캠페인 진행



▮ 프로그램 소감문 발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배움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홍콩폴리테크닉대학교에서의 경험은 인공지능이 실제 학습과 연구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인공지능 센터와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이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도 인공지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 상경대학 국제마케팅전공, 박○○ -



작은 전공으로 여는 넓은 세계, NADAUM(나다움) 프로그램

캐나다의 독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Toronto Public Library - Northern District Branch의 현장 인터뷰였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인종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보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서분들의 생각과 태도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운영 방식과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재미와 소통의 장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의 도서관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도서관은 책을 읽고 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캐나다의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와 학부모, 지역 주민들에게 프로그램 참여와 지식 습득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그 현장을 확인하면서, 한국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국제학부 글로벌한국학전공, 임○○ -

기대효과

NADAUM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전공 및 마이크로전공 역량을 실질적으로 확장하고,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역량과 협업 능력 등 PSC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마이크로전공을 통해 배운 이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며, 문제 해결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협업 능력을 키우는 등 PSC 핵심 역량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됩니다. 또한, 글로벌 감각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심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NADAUM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전공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더욱 반영하여 고도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전공에 특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심화 수준을 높이고 수행 국가 및 지역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파견 후 연계 활동(성과 보고회, 전문가 멘토링 등)을 강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NADAUM 프로그램은 PSC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 교육모델로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마이크로전공 연계 해외 수행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세상을 밝히는 한 걸음, 마음을 잇는 봉사, 세상을 잇는 사랑”



김성호

우석대학교
선임

▮ 활동배경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인성 및 실천적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봉사활동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봉사활동은 학생 주도 프로젝트 형식으로 기획되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활동내용

낙후된 주거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문제를 분석하고, 환경정화, 홀몸 어르신 주택 보수, 자원 재활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도시에서 접하기 힘든 농촌 체험을 통해 식량 안보, 지역경제,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 활동성과 및 의의

봉사활동은 단순한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대학 간 지속 가능한 관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팀워크와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사회문제를 체감하며 실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 역시 학생들의 따뜻한 손길에 감동하며, 마을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땀방울로 맺은 농촌과의 연대”

일손부족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농촌 일손 봉사활동

- 1 우석대학교(진천캠퍼스), 진천군, 진천군자원봉사센터, 농협중앙회 진천군 지부와 함께 지역 대학생들의 생산적 일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2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직원 및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는 일손과 활력을 불어넣고, 농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일손이음 지원 사업 봉사 활성화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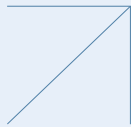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함께 만드는
 큰 변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실천 봉사활동

- ① 대학(ESG 비전 선포), 지역(진천군 ESG 선도 선포 도시)이 함께 ESG 경영을 선포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및 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
- ② 일회용 용기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구환경을 지키는 자원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플로깅, EM흙공던지기, 제로웨이스트 등)



“지역과 대학이 하나되는 시간”



대학-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상생 문화행사

- 1 대학 및 지역 간 자원 공유 및 연계·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나눔문화 확산 기여
- 2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진천군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는 ‘안녕 충북 나눔마을기’ 봉사 활동에 봉사자로 참여(2023, 2024)하여 고령화와 낙후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능나눔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 복지서비스 확대 기여
- 3 제18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봉사자로 참여하여 개.폐회식 행사지원, 경기장 안내, 환경정화, 선수단 환영, 질서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 기여
- 4 그 외에도 생겨진천 문화축제, 진천군 농다리 축제 등 지역 내 문화축제 부스운영에 대한 활동보조,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융합전공 스테인드글라스템페라 해외작가 초청 워크숍



정수경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그리스도교미술학과 학과장
(융합전공 전담 전임교수)

추진 배경

인천가톨릭대학교는 국내에서 드물게 스테인드글라스 분야에 특화된 교육 및 연구체계를 갖춘 대학으로써, 학문적 정체성과 실기 교육의 전문성을 심화 교육하고 있다. 전통 기법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바탕으로 실용적 창작 역량을 제고하며, 이론 강의와 실습 중심의 교육을 조화롭게 운영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예술 실험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

추진 목적

전통적 스테인드글라스 기법을 현대 조형 언어로 확장함으로써 표현의 지평을 넓히고, 유럽 작가들의 실습 중심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최신 기법을 국내 교육 현장에 접목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조형 설계 능력, 그리고 협업 역량을 고루 함양하고, 졸업 이후 자율적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 전공
활성화

스테인드글라스템페라는 2022학년도부터 종교와 예술을 융합한 ‘스테인드글라스템페라 융합전공’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형예술학과와 종교의 융합을 통해 학문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그리스도교 생명문화를 창출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실습 기반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운영개요

융합전공 스테인드글라스템페라 해외작가 초청 워크숍은 총 2부로 구성되었으며,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스테인드글라스의 전통 기법에서부터 현대적 표현 방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예술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기획하였다. 특히 해외작가와와의 실질적인 예술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글로벌 소통의 기회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운영내용

구분	1부	2부
일시	2025. 1. 13. ~ 1. 17. [5일간]	2025. 1. 20. ~ 1. 25. [6일간]
주제	① 조형언어로의 납선기법 연구 이론 ② 조형언어로의 납선기법 연구 실습	① 글라스페이팅의 회화적 표현 연구 이론 ② 글라스페이팅의 회화적 표현 연구 실습
강사	Karl Heinz Traut (독일)	Gontel & Dupin (프랑스)

- ▶ 기획 및 작가 섭외 : 정수경 교수 (그리스도교미술학과 학과장/융합전공 전담교수)
- ▶ 진행 : 윤주연 교수 (그리스도교미술학과 겸임교수)
- ▶ 참여학생 : 융합전공(스테인드글라스템페라)학부이수생및대학원 그리스도교미술학과 스테인드글라스전공생

추진성과

- 참여 학생들은 주제별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5~6일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스테인드글라스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조형 감각과 실기 기술을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었고 학부 전공 수업에서 다루기 어려운 고난이도의 제작 과정까지 실습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인천가톨릭대학교가 추구하는 맞춤형 창의 교육의 사례로 밀착형 워크숍 운영을 통해 소규모 대학의 강점인 깊이 있는 전공 실습이 가능했으며 교수·학생 간 밀도 있는 예술 교육이 실현되었다.
- 해외작가의 직접 강의를 통해 유럽의 최신 기법과 창작 트렌드를 접함으로써, 학생들은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표현 방식을 비교·분석하는 안목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예술 인재로서의 감각과 이해도를 심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 공동 실습 과정에서 서로의 작업 결과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며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예술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협업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프로그램 주요 내용

융합전공 스테인드글라스템페라 해외작가 초청 워크숍 [1부]

주제 ①

조형언어로의
 납선기법
 연구 이론

초청작가

Karl Heinz Traut (독일)

- 유럽에서 사용되는 전통 납선기법의 역사적인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현대적 조형언어로 확장하는 가능성을 탐색함.
- 작가의 실제 작품 사례를 바탕으로 유리 작품의 표현 기법과 작품 실행 시 유의점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설이 이루어졌으며 국내 창작 환경에 적용 가능한 트렌드 분석도 함께 소개됨.



주제 ②

조형언어로의
 납선기법
 연구 실습

초청작가

Karl Heinz Traut (독일)

- 학생들이 자신이 구상한 디자인에 맞춰 직접 유리재단, 납선조립, 마감작업까지 실제 스테인드글라스 제작의 전 과정을 실습함.
- 납땜 및 퍼티, 보강작업을 작품의 구조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작품의 마무리 단계인 세척까지 직접 경험함으로써 전통적인 납선 기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함.
- 기초부터 고급 공정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학습하여 학생들의 실기능력 역량과 조형적 감각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됨.



융합전공 스테인드글라스템페라 해외작가 초청 워크숍 [2부]

주제 ①

글라스페인팅의 회화적 표현 연구 이론

초청작가

Gontel & Dupin (프랑스)

- 유럽 스테인드글라스의 역사적 흐름과 대표적인 성당 사례를 중심으로 작품에 적용된 유리 안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이론 교육을 진행함.
- 다양한 유리 안료에 포함된 금속 화합물에 따른 발색 원리와 회화적 응용 방식이 소개됐으며, 실제 파손된 작품의 복원사례 제시를 통해 스테인드글라스 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임.



주제 ②

글라스페인팅의 회화적 표현 연구 실습

초청작가

Gontel & Dupin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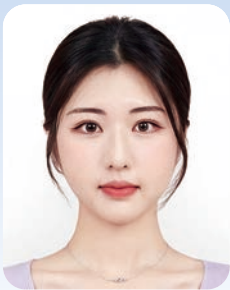
- 학생들이 유리에 총 3차에 걸친 페인팅을 직접 실행하며 섬세한 회화적 표현을 연습했으며, 마스크액 제작, 스프레이 적용 등 새로운 방식을 실험·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인 표현방식을 습득함.
- 글라스퓨징을 적용한 실험판의 가마소성 결과를 비교 분석해 안료의 발색 변화와 투명도의 차이를 직접 체험하고 글라스페인팅의 예술적 적용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함.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차의과학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 '두잇' 운영



최민주

차의과학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원

추진 배경 및 목적

차의과학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를 위해 학생 맞춤형 홍보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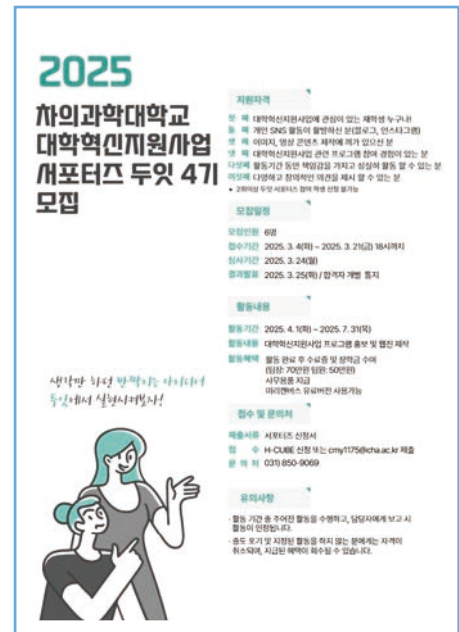
기존의 포스터 및 공지사항 중심의 홍보 방식은 정보 전달력과 참여 유도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으며, 학생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인 접근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차의과학대학교는 재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서포터즈 '두잇'을 운영하였다.

본 서포터즈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관점에서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고, 콘텐츠 제작 및 소셜미디어 운영을 통해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확산을 도모하였다.

또한 '두잇'은 단순한 홍보 활동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의견을 제안하며 모니터링과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의 소통 창구의 임무를 수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 혁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서포터즈 두잇
 단원 모집 홍보 포스터

▣ 프로그램 개요

본 프로그램은 차의과학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기획된 재학생 참여형 홍보 서포터즈 활동이다. 매년 1학기와 2학기 각각 1회씩, 연 2회 운영된다.

매 회차 6명의 서포터즈를 고정 선발하여 팀 활동 및 개별 과제를 수행하며 주요 활동 내용은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취재, 카드뉴스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프로그램 참여 후기 공유 및 아이디어 제안 등이다.

운영 절차는 매월 초, 서포터즈 단원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인당 4~5개를 선착순으로 선택하고 선택한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활동을 수행한 뒤 월말에는 개인별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매월 정기 회의를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및 서포터즈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 사항을 논의하고 새로운 홍보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 2기 오리엔테이션



▲ 2기 정기회의



▲ 3기 오리엔테이션



▲ 3기 정기회의

특히 활동 마지막 달에는 서포터즈 팀원 전체가 직접 기획·제작한 웹진 형태의 홍보물을 완성하며, 해당 웹진은 타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공문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사업 성과의 확산 및 정보 공유에 이바지한다.

활동 종료 후에는 서포터즈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 중심의 자율적 참여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 사업 추진 결과 및 성과

2024학년 기준 총 2회차의 서포터즈 ‘두잇’을 운영하였다. 회차당 6명의 단원이 고정적으로 참여하였다. 2기 서포터즈(2024년 3월~7월)는 프로그램 참여 후기 14건, 홍보 콘텐츠 46건, 인터뷰 10건, 교육 및 특강 참여 5건, 홍보 릴스 5편, 웹진 2편을 제작하였다.

3기 서포터즈(2024년 10월~12월)는 참여 후기 15건, 홍보 콘텐츠 29건, 교육 및 특강 참여 1건, 홍보 릴스 4편, 웹진 1편을 제작하였다.

2024년도 기준, 두 기수의 활동을 통해 카드뉴스, 영상 등 총 129건 콘텐츠, 웹진 3편을 차의과학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배포하였다.

콘텐츠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형식으로 제작되어 기존 포스터 및 공지사항 중심의 홍보보다 높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활동 전반에 대한 피드백은 차후 운영에 참고 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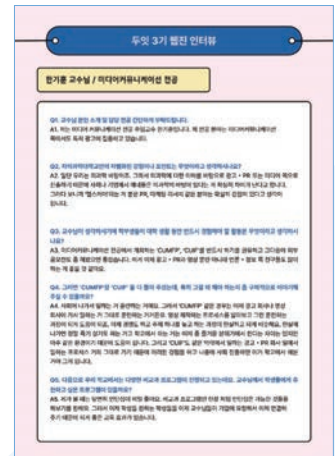
▲ 2기 웹진 표지



▲ 2기 웹진 내용 중 일부 발췌



▲ 3기 웹진 표지



▲ 3기 웹진 내용 중 일부 발췌

향후 계획

서포터즈 두잇 활동은 앞으로도 매 학기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와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다.

현재 서포터즈 시작 전 사전 교육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활동 초기부터 단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작 콘텐츠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회의에서는 단원들이 직접 활동하면서 느낀 의견이나, 개선 사항,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포터즈 활동 결과로 제작된 웹진은 향후 타 대학과의 정보 공유 및 사업 성과 확산 자료로 계속 활용할 예정이며, 정리된 자료는 내부 활용 자료로도 보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는 서포터즈 활동 종료 후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단원들의 소감을 수렴하고, 이를 다음 회차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운영의 완성도를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2기 서포터즈 단원 미술치료학과 - 정연수 학생 후기

• • 한 학기 동안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두잇으로 활동하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이 학생들과 학교 내 다양한 부서들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서포터즈로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교육과 경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우분들에게 학교 센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설명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혜택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행해 보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진행을 통해 상황에 맞게 정보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했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좋은 부원들을 만나서 정말 좋았고, 평생 잊지 못할 활동이 될 거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기 서포터즈 단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정우현 학생 후기

• •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두잇으로 활동한 지 벌써 한 학기가 지난 게 믿기지 않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매달 회의를 하고 우리 학교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홍보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을 위해 우리 학교의 많은 교직원분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매번 자료를 제작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였고 두잇 활동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두잇을 통해 학우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전달될지, 어떻게 이목을 끌어야 할지 등을 고민하면서 가장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두잇은 언제나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이 같은 눈높이에서 알차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테니 앞으로도 두잇과 차의과학대학교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한남디자인팩토리 - 전공의 문(門)을 허물고 혁신의 문(問)을 열다



안형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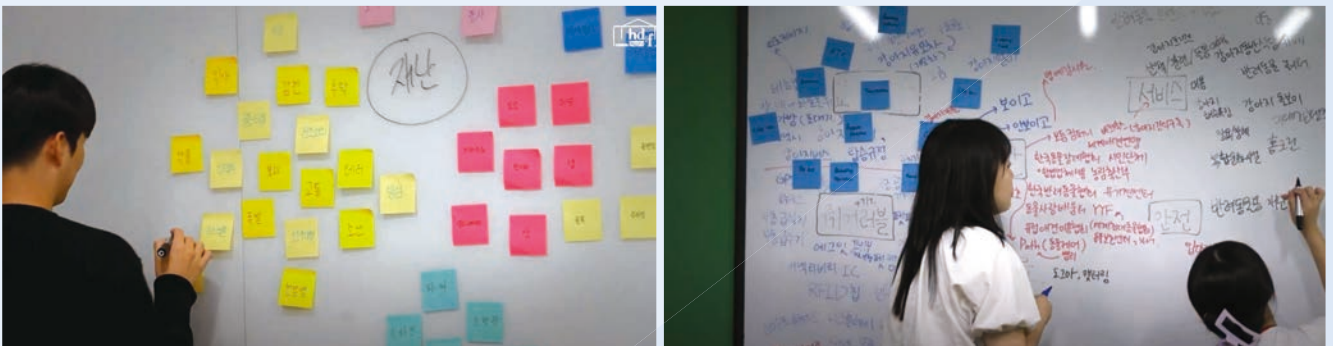
한남대학교
한남디자인팩토리
과장

ChatGPT의 시대가 도래했다. AI는 강의 질문, 과제, 시험 대비 같은 학업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학생의 AI 활용은 익숙함을 넘어 의존성을 경계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불과 1~2년 동안 발생한 변화이다. 학생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AI에게 '질문'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시대의 변화는 대학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남디자인팩토리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질문으로 혁신을 이끄는 인재'를 키우고자 도전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모델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한남디자인팩토리는 한남대학교에서 창의융합형 교과목의 개설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본래 디자인 팩토리는 핀란드 알토대학교에서 디자인씽킹방법론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고안된 교육 플랫폼이다. 한남대학교는 2019년에 디자인팩토리 글로벌 네트워크에 국내에서 2번째, 세계에서 27번째로 가입하여 이러한 교육 체계를 본교에 도입하였다. 현재 디자인팩토리 글로벌 네트워크는 25개국 39개가 가입해 있으며 전술한 교육철학을 공유하며 다양한 교과목의 팀티칭을 진행하고 있다.

한남디자인팩토리의 창의 교육은 다양한 관점 융합을 핵심으로 한다. 첫째, 전공 간 관점을 융합한다. 디자인, 공학, 경영 계열의 학생이 함께 수업에 참여한다. 디자인 계열의 융합디자인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공학 계열의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경영 계열의 경영학과, 글로벌비즈니스 전공까지 7개 전공이 디자인팩토리 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하나의 팀에는 7개의 전공생이 1명 이상씩 들어가며 7~8명이 한 팀이 된다. 교수자도 7개 학과의 교원이 하나의 강의실에 모여 팀티칭으로 진행한다. 전공 간 융합은 쉽지 않다. 전공 간 융합을 하지 않더라도 학과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융합 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 한남디자인팩토리 교육에 참여하는 기계공학과 이용택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기계공학과 4학년 7명이 모인 캡스톤디자인의 결과물이 기술적 수준은 더 높습니다. 그러나 디자인팩토리에서는 기계공학과 학생이 하드웨어를 만들면,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디자인학과 학생이 디자인을 입힙니다. 경영학과 학생들은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미디어영상학과 학생들은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과 모델링을 담당하죠.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와 제품을 바라보는 전공별 상이한 관점을 학습하며 성장합니다.” 융합 교육의 참여 동기를 학생의 성장으로 설정하고 있는 교원의 열정이 없었다면 디자인팩토리의 융합교육은 이뤄질 수 없었다. 이러한 융합 교육이 가능했던 두 번째 요인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한남디자인팩토리는 1층에는 모든 벽면에 화이트보드형 유리가 설치된 아이디어 회의실을 만들고, 지하에는 아이디어 회의가 끝나자마자 아이디어를 검증해볼 수 있는 시제품 제작실을 구축했다. 시제품 제작실에는 4축 보행로봇, GPU서버, 3D프린터, 레이저커터, 아두이노 제작에 필요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없었다면 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환경 구축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7개 전공으로 구성된 학생 팀은 1학기에는 1인 가구, 고령화 사회, 아동 범죄 예방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과목인 Creative Product Design(CPD)을 수강한다. 2학기에는 경찰청, 한국수자원공사, 성심당, 네이버, 현대건설과 같은 기업들이 제시한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도출과 시제품 제작을 진행하는 프로젝트형 과목 Innovative Product Development(IPD)를 수강한다.



▲ 그림1. 창의융합형 교과목에서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회의하는 모습

둘째, 한남디자인팩토리의 교육은 국가 간 관점을 융합한다. 지식집약형 산업, 플랫폼 산업은 국가 간 경계를 허물고, 물리적 거리의 제약 없이 전 세계를 시장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 한남디자인팩토리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39개의 디자인팩토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Global Design Thinking Project(GDTP, 3학점) 과목은 CPD와 IPD 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 과목은 런던디자인팩토리와 공동으로 운영되며, 영국의 McDonald, Chelsea FC, 미국의 Ford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제시한 문제를 프로젝트 주제로



▲ 그림2. Micro Design Challenge가 진행되는 모습 (한남디자인팩토리-런던디자인팩토리, 참여기업 : 영국 Stylideas)



한남디자인 팩토리 - 전공의 문(門)을 허물고 혁신의 문(問)을 열다

설정하고 진행되는 수업이다. 앞서 설명한 국내 중심으로 이뤄지는 CPD, IPD와의 차이는 GDTP 교과목에는 전 세계의 디자인팩토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일례로 2023년 영국 McDonald는 ‘플라스틱 제로형 해피밀 토이 개발’을 프로젝트 주제로 제시했다. 이 과목에는 전 세계 7개 디자인팩토리, 21개 팀이 참가해서 국제 공모전 형태로 교과목이 운영되었다. 국가별 디자인팩토리의 대표 교원들은 온라인으로 팀티칭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McDonald 수석 디자이너와 Q&A세션을 다수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한남디자인팩토리 학생들은 프로젝트에서 우승을 하였으며, 학생들이 출품한 작품은 영국 맥도널드에서 상용화 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와 같이 큰 부담을 감수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학기 중에 해외 디자인팩토리의 교원, 학생과의 만남, 해외 기업의 실무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한국에 국한된 시각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GDTP를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Micro Design Challenge(MDC)라는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MDC 과정은 한남디자인팩토리와 해외 디자인팩토리가 국가와 전공을 섞어서 한 팀을 구성하고 해당 팀들이 글로벌 기업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여름방학에는 한남디자인팩토리로 해외 디자인팩토리의 학생들을 초청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겨울방학에는 해외 디자인팩토리로 본교의 학생을 파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GDTP는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국제적 팀티칭으로 인하여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강좌라 할 수 있다. MDC 과정에서 학생들은 한국인의 관점과 상이한 사고방식과 관점을 경험하게 되며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과 해결책을 떠올리는 과정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방식을 습득하게 된다.

전공 간 융합, 국가 간 융합 과정에서 학생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과 다름을 만난다. 그리고 질문한다.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해석해보아야 하나?’, ‘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었나?’. 디자인팩토리에서 많은 학생들의 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관찰해보면 다양한 생각과 관점이 충돌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된다. 때론 그러한 긴장된 순간이 팀의 불화로 이어지는 않을지 실무자의 관점에서 불안하게 지켜보는 때도 있다. 그러나 각 교육과정이 끝나고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학생들의 성장이 눈에 보인다. 다른 생각은 질문을 낳고, 새로운 질문은 새로운 해결책에 다가가는 걸음을 내딛게 한다. 위에 전술한 대부분의 교과목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남디자인팩토리의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고 운영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한남대학교를 대표하여 감사를 표하며, 전공 간 융합, 국가 간 융합 사이에 존재하는 대학 간 융합에 관심이 있는 다른 대학과의 협력을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한서대학교 산학협력 기술개발을 통해 6년 연속 총 24개 CES 혁신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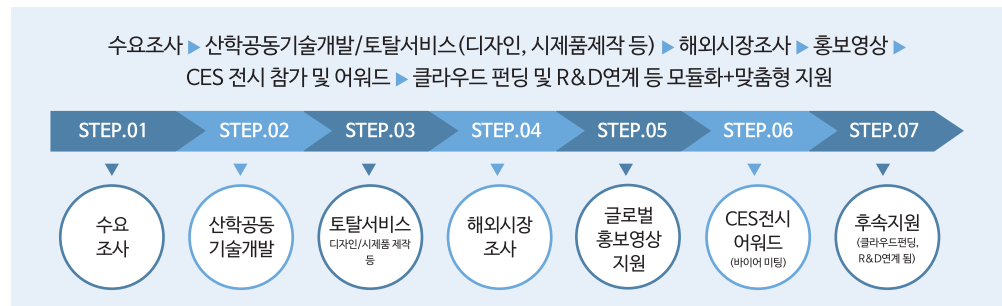


박창해

한서대학교
 HS혁신지원사업단 교수
 (HS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

추진 배경

- 한서대학교 “One-Stop 기업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가족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브랜드 가치 창출 및 해외 시장 개척의 확대
- 한서대학교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와 토탈서비스를 통한 시제품 제작 및 기술개발지원
- 한서대학교 장비, 전용공간, 전문인력 인프라를 활용한 가족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참여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추진 개요

- CES 혁신상은 세계최대소비가전박람회(CES)를 개최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서 세계를 선도할 혁신기술 및 제품에 수여하는 국제적인 혁신상으로 한서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6년 연속 총 24개의 혁신상 수상
- 한서대학교 재학생 및 가족기업 중 혁신성을 가진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1차 발굴하여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애로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등 혁신제품의 기술적인 지원과 혁신상 출품 비용, 서류 및 홍보 영상의 영문 번역과 검수, 홍보 동영상 제작, CES 2025전시 물품 운송 및 전시 지원, 현지 통번역 등 실질적인 지원까지 가족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다방면으로 지원함
- 한서대학교 산학협력 결과물을 세계 최대의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를 통해 홍보하고 글로벌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며 수출 판로개척 및 수출 활성화 기여를 통해 해외 진출 확대와 위상을 제고

추진과정

- 기업수요조사-소비자트렌드-동향조사-애로기술자문 및 디자인컨설팅-디자인개발-시제품 제작-마케팅 지원-국내외 어워드출품 및 전시지원-후속지원 등 한서대학교의 One-Stop 기업지원플랫폼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과 사용자가치를 향상시키는 제품개발을 추진
- CES 2025 Innovation Awards에서 Drone 부문 혁신상을 수상한 스카이 플라이트(학생), 에어어스(학생) 그리고 Home Appliances 부문 혁신성을 받은 (주)티에이비는 국제적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았으며, 한서대학교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브랜드 가치창출 및 글로벌 新 시장진출의 발판을 마련함

주요성과

- CES 2025 Innovation Awards에서 3개 혁신상 수상, 총 6년 연속 24개의 혁신상 수상(국내 대학 최초·최다 수상)
- 금년도 수상한 3개의 혁신상 중 2개는 한서대학교 재학생이 수상, 우수 인재 양성 및 학생 창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과를 달성
-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

성공요인

- 한서대학교 지속적인 기업 발굴 및 “One-Stop 기업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CES 혁신상 수상 가능
- 혁신성이 있는 학생들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창업 초기 기업지원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통한 애로기술의 해결과 디자인융합 멘토링으로 사업화 성공을 견인
-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위한 CES 전시 참여 지원으로 학생 시제품, 가족기업 제품 출품과 혁신상 신청 및 현지 전시 지원
- 한서대학교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및 ONE-STOP 기업지원 토털서비스를 통해 발굴한 학생과 혁신기업에 있어 단발적인 지원만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과 이에 상응하는 성과를 이뤄냄

CES 2025 수상제품 디자인 개발·시제품·홍보영상 제작지원

스카이플라이트(학생)	에어어스(학생)	(주)티에이비
		

한서대학교 특성화 구조개혁 사례



김용이

한서대학교
인재개발본부 교수
(인재개발본부장)

추진 배경

- 한서대학교는 대학이 자체 비행장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몇 안되는 특성화된 대학으로 78만㎡ 규모의 비행장과 47대의 교육용 항공기를 보유 중임
- 이러한 인프라는 항공운항, 항공정비, 항공관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항공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분야 및 드론 분야에서 전문성과 관련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 중임
-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재학생 수의 감소와 신입생 충원율을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문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전통학문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학생충원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지역의 명문대학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동력으로 새로운 교육환경과 정부 정책에 맞추어 적정 규모화 계획을 추진하고 정원 감축 및 학사구조 개편을 추진하였음

추진 개요 및 과정

- 2024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정량지표 만점기준 및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 지표 최소 기준을 적용하고, 자체적으로 본교 대학구조조정 규정의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 전체 학과의 경쟁력 분석함
- 전문기관을 통해 지표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입학경쟁률,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중도탈락율 경쟁력이 충청권역 평균과 비교하여 취약한 학과를 대상으로 정원 조정에 의한 적정규모화를 제시함(A그룹 - 전공역량강화, B그룹 - 학사구조 개선, C그룹 - 정원조정)

1 직정규모화 계획 및 방향

핵심요인

입학자원 감소 심화

대학간 입학 경쟁 심화

대학재정지원사업 확대

4차산업혁명 대응

개편방향

입학정원 감축

입학정원 증원

학과 통·폐합 확대

특성화/융·복합 학과 신설

- 정원감축 : 교육부 방침에 따라 유지충원을 미충족 학과 대상(23학년도 자율감축 인원 제시)
 - 입학정원 증원 : 입시경쟁력 높은 학과 대상 정원의 조정 (입학자원 확보)
 - 학과 통폐합 : 경쟁력 낮은 유사전공간의 학과통합으로 신학문 추구 (정원 조정)
 - 특성화/융복합 학과 신설 : 자율학과(학부) 설치로 입학자원 확보 (자율전공을 통해 원하는 전공 지원가능)
- * 학과(학부) 명칭 변경, 학부 재조정을 단계적으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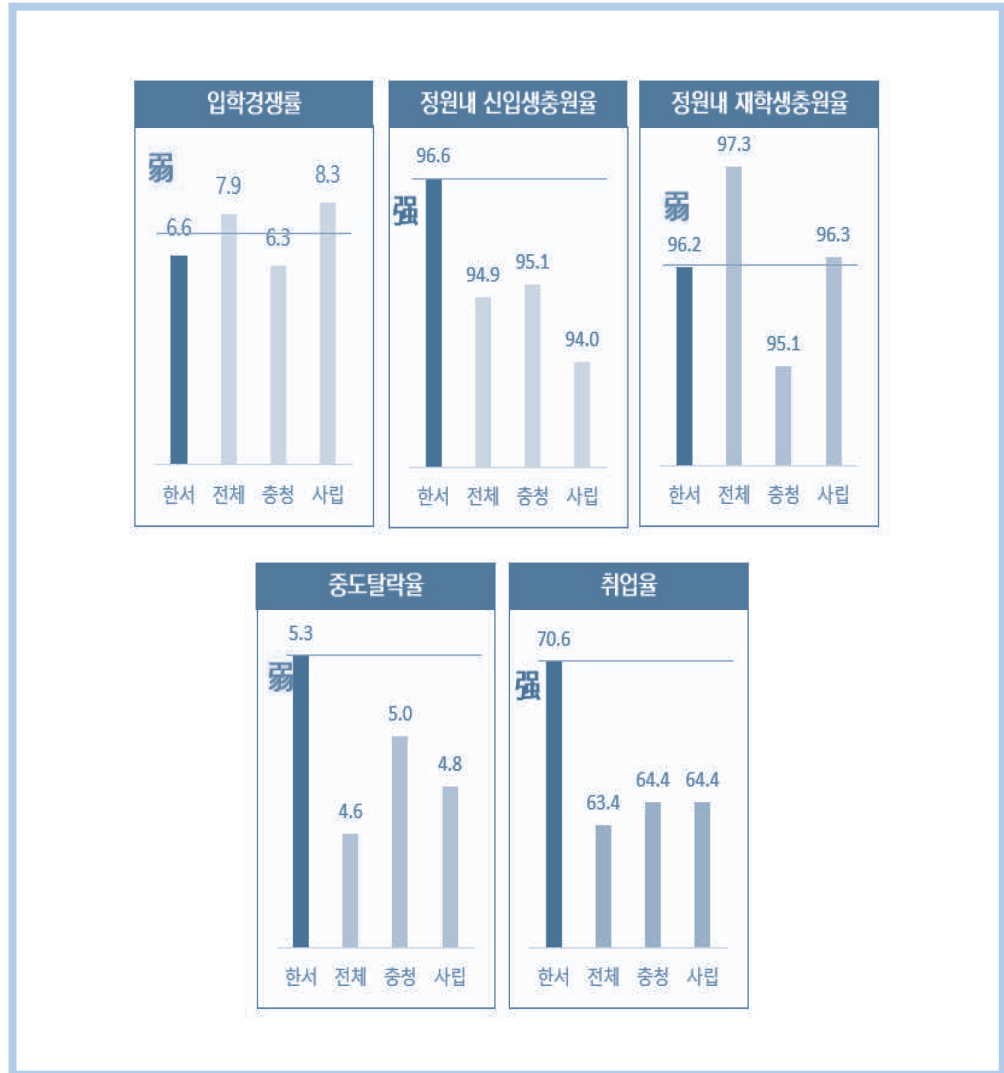
2 정원감축 및 학사구조 개편

교육부 직정규모화 방안 제시

1. 첨단인재 양성 : 항공컴퓨터 → 인공지능(AI)학과 변경
2. 학부 대학원 정원 조정 : 항공융합대학원 정원 증원
3. 모집정원 유보제 → 잠재적 경쟁력 학과 정원 유보
4.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 지역 산업 재직자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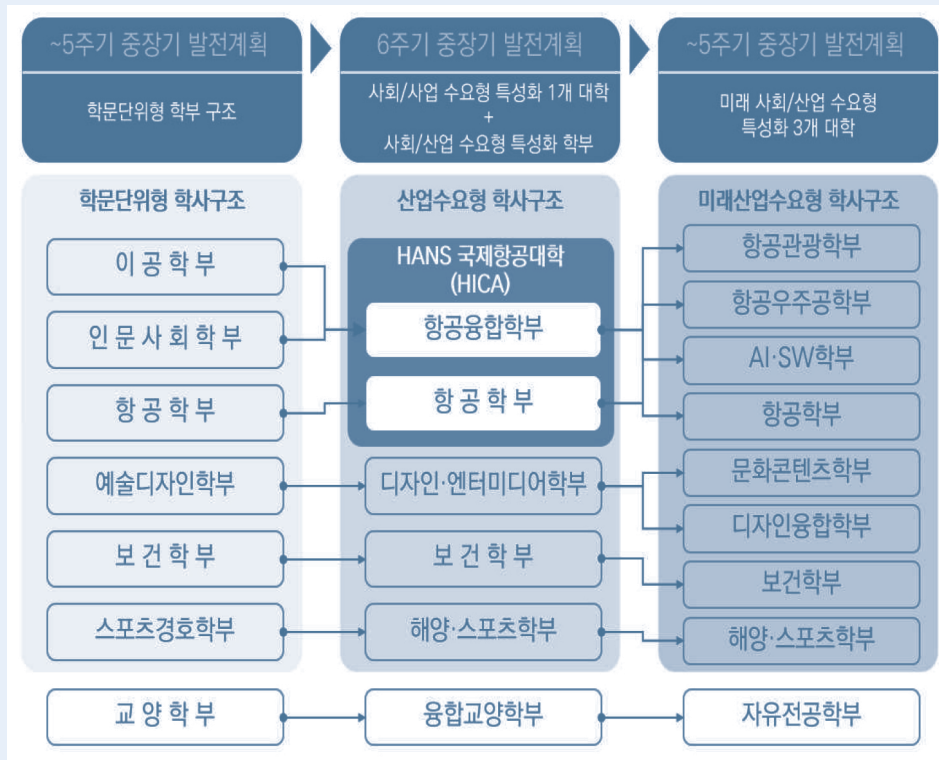
- 첨단학과 신설 : 학부정원 미충족 인원에 대해 첨단분야 학과로 신입생 모집 전환(인공지능 전공으로 전환)
- 학부 대학원 정원 조정 : 특성화 중점 연구분야 인력 양성 부문 학과 신설 및 증원(UAM 분야 인력양성)
- 모집정원 유보제 : 특성화(해양분야) 연계 학과 정원 유보
- 성인학습자 정원 : 지역 산업단지(서산 대산공단 등) 재직자 학습과정(학과) 설치 및 계약학과 운영

▲ 그림1. 학사구조 개편



▲ 그림2. 지표분석 결과

- 한서대 특성화 전략에 따라 항공·공항·해양분야의 전공 확대로 경쟁력 학과(전공)에 집중화하며, 잠재적 경쟁력 학과(전공)에서의 전공융합화를 정원을 감축하고, 새로운 첨단 학문의 특성화 분야에서 정원을 배정함



▲ 그림3. 한서대 특성화 전략

주요성과

- 학사구조조정 결과는 2024년 신입생 충원율 94.6%에서 2025년 99%를 달성하였으며, 특성화분야에서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전공분야에서의 입시 경쟁률이 높아졌음.
- 한서대학교의 특성화 구조조정은 항공 분야의 전문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협력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됨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한서대학교 ESG 선도 모델 제시



최일석

한서대학교
기획예산처 성과혁신IR센터
팀장

우수사례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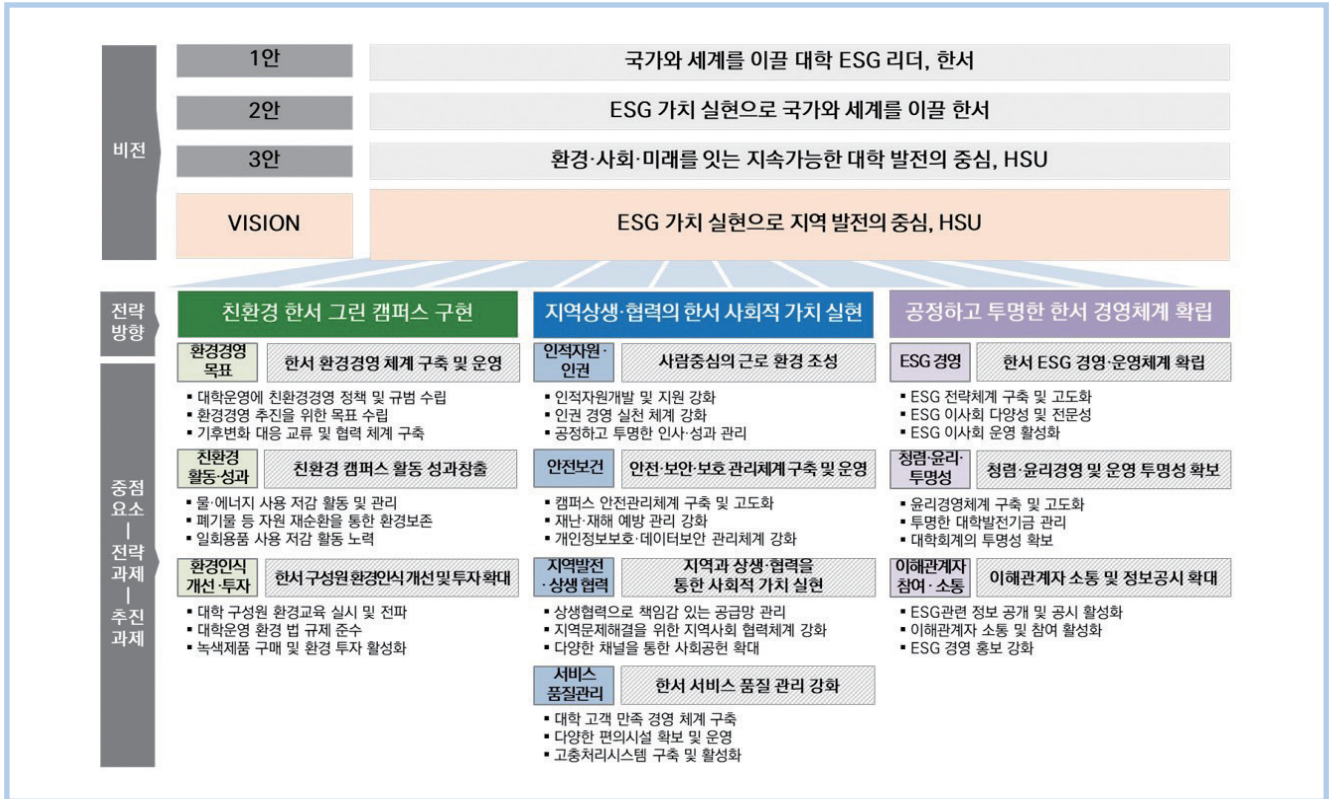
한서대학교는 '2022~2024(2주기)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정부정책을 선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실현해옴

우수사례 추진 개요

- 2022년 'ESG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SG 혁신위원회 규정을 제정
- ESG 경영전략 비전(ESG 가치 실현으로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는 HSU)과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ESG 운영 및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운영
- 친환경 캠퍼스 구현(E),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S), 투명 경영 실천(G)을 목표로 설정하고 2023년 2월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비전 선언식을 가짐



▲ ESG 경영전략 비전 선언식



▲ 한서대학교 ESG 비전 체계도

우수사례 추진과정

- 학생 대상 학습과 대학 사업, 대학 운영, 지역과의 상생 등에 끊임없이 ESG 경영의 비전과 목표를 연계하려고 노력함
- 매년 구성원을 대상으로 ESG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활동 장려를 위한 특강과 공청회 진행
- 12개 대학 120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한 ESG 경영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2022년부터 매년 한서대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ESG 공모전을 통한 신규 사업 개발 이벤트 진행
- ESG 개념이 반영된 지역주민과 함께 환경 정화활동도 매년 시행
- 탄소중립을 통한 친환경 캠퍼스 구현을 위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를 선언
- 2025년 6월부터는 전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



▲ 교직원 대상 ESG 특강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종이없는 회의

▮ 우수사례 주요성과

- ESG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을 제정하며 ESG 경영전략 비전과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ESG 운영 및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 대학의 ESG의 선도 모델 제시
- 지역 상생 ESG 활동 적극적 시행으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공동 후원하고 동아일보가 주관하는 '2024 K-ESG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배구조 ESG 대상> 수상

한서대학교 ESG 선도 모델 제시



▲ K-ESG 경영대상 대상 수상

우수사례 성공요인

- 한서대학교 ESG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을 제정하며 ESG 경영전략 비전과 전략 방향을 설정
- 한서대학교 ESG 실천 및 운영 및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 지역 상생 ESG 활동 적극적 시행
 - 초·중·고·교 환경동아리 학생들과 진행한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학생 전공 역량을 활용한 지역 소상공인 디자인(로고 등) 지원 활동
 - 서산 태안 지역 청소년 드론 교육
 - 해미국제성지 및 순례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영상 공모전, 해양 정화, 지역 축제 지원 등 단체 봉사활동 등

학생사례

Student case

대학혁신지원사업 제1회 전공박람회 참여 후기



김여민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학생

제1회 전공박람회 'KU어드벤처: 전공탐험대'는 건국대학교 재학생들의 전공 선택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올해 처음 개최된 프로그램입니다. 총 40여 개 학과가 참여했으며, 학과별 부스와 전공 체험 부스를 통해 학생들이 구체적인 전공 정보를 얻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신설된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을 포함하여 전공 결정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님과 선배들이 직접 생생한 전공 정보와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친구 매칭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학과 학생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고, '메시지 카드 작성' 등 부대행사를 통해 진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창업 및 진로 상담 부스도 함께 운영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심도 깊게 고민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행사 외부에는 체험존이 설치되어, 학교 내에 존재하는 여러 융합 전공과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부스별 스태프를 모아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뿐만 아니라, 퍼스널 컬러 진단, 인생네컷 촬영, 미니 게임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 학우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전공박람회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타 전공에 관심 있는 재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다양한 전공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경험자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에게는 아직 낯선 학교 내 여러 프로그램들을 알리는 기회가 되어,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특히, 관심은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던 전공과 진로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에, 자신의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고 설계하려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1회 전공박람회
'KU어드벤처: 전공탐험대' 현장 스케치

학생사례

Student case

CES 2025,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과 사람을 잇다



박주열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공학과
학생

지난 1월, 저는 건국대학교의 'KU: Super Rookie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 2025에 참가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KU: Super Rookie Global 2기 프로그램은 혁신 기술이 교류되는 국제 무대에서 직접 활동하며 글로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는 '드론 메이커스'라는 본교 학생 창업 기업과 매칭되어 CES 참가를 준비하고 현장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드론메이커스'와 함께 CES에 출품할 제품의 강점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내외 드론 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글로벌 드론 시장에서 드론 메이커스의 기술이 어떻게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CES 현장에서의 주요 타겟 관람객 설정, 제품 메시지 구성, 산업별 대응 전략 수립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도출했습니다.

전시회 현장에서는 제품 시연과 기술 설명, 바이어응대 등 부스 운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며 많은 글로벌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출신의 항공사업자와의 만남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시 후드티를 입고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이시던 그분과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도시 기술과 드론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문화적 공감대를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의 방문객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단순히 기술적 설명을 넘어, 상대방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고, 관심사를 중심으로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소통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 방문객과는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아랍에미리트 방문객과는 도시 개발 및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며 제품 설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언어적 능력 뿐만 아니라 ‘문화적 민감성과 공감능력’이 핵심 역량이 될 수 있음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통합관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해치탈 모객 이벤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해치 캐릭터를 활용해 K-pop 댄스를 추거나 관람객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단순한 홍보를 넘어 부스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했고, 인스타그램 릴스(Reels) 및 해시태그(#CES, #서울통합관 등)를 통한 콘텐츠 배포로 온라인 홍보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현장 기획력과 콘텐츠 마케팅 역량이 높이 평가받으며 서울 통합관 최우수 앰버서더로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디지털 콘텐츠 기획, 현장 마케팅 전략, 관람객 중심의 경험 설계 등 마케팅 실무의 다양한 측면을 실전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활동에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역할을 넘나드는 실전형 성과 경험’이었습니다. 조사자에서 전략가로, 운영자에서 소통가로 변신하며 CES라는 글로벌 무대에서 설 수 있었던 경험은, 단순한 박람회 참여 이상의 큰 성장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공과 역량을 지닌 슈퍼루키 팀원들과의 협업 역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며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연한 사고방식과 열린 태도,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을 한층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CES 2025 참가는 제 인생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술과 사람, 그리고 문화를 연결하며 실무적 역량 뿐만 아니라 인문적 감수성까지 확장 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산업과 사람 사이에서 가교가 되는 인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KU: Super Rookie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점들과 특별한 경험들을 잊지 않고, 더 넓은 무대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CES 2025 **참가는**
제 인생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술과 사람, 그리고
문화를 연결하며
실무적 역량 뿐만 아니라
인문적 감수성까지
확장 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2024학년도 학부생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 우수연구자 참여 학생 인터뷰 공유



안하정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부생

(질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답변) 저는 식품영양학과 '영양연구' 수업에 참여하며 연구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수업은 한 학기 동안 관심 있는 실험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포스터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연구 프로젝트형 수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문적 탐구의 매력을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방학 동안 실험실에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연구 경험을 더욱 확장하고자 학부생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에 기쁘게 지원하였습니다.

(질문)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나요?

※ 6주 동안 어떤 방식(과정)으로 연구를 수행했는지 작성해 주세요

(답변) 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진행한 활동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건강영양조사 단체급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에 보조원으로 참여하여 데이터 정제 및 보완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식생활 관련 빅데이터를 다루는 저희 실험실에서 필수적인 데이터 정제 역량을 함양하였으며, 연구 과제의 전체적인 흐름과 연구자가 갖춰야 할 기술적 능력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둘째, 저희 지도교수님께서 센터장을 맡고 계신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실무를 경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식단의 식품알레르기 정보제공 웹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에서 식단 레시피와 영양소 데이터 구축 업무를 보조하며, 전공지식과 연구기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 있는 연구 분야를 다각도로 탐구하였습니다. 지도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연구 주제를 선정 후, 그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고찰을 시작으로 연구를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동계 인턴십 기간에는 그동안 탐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식생활평가지수의 개발과 활용, 식이보충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식생활 평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대학원 진학 후에도 이러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연구 인턴십에서의 경험이 좋은 기반이 되었습니다.

(질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큰 장점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6주라는 시간은 짧으면서도 충분히 긴 기간이었고, 그동안 꾸준히 실질적인 경험을 쌓으며 막연한 진로 고민이 아닌 구체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 실험실에 출퇴근하며 연구자로서 필요한 성실한 태도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질문)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 또는 추천해주세요

(답변) 학부생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은 연구에 대한 작은 관심이라도 있는 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방학 동안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방학에 진행되는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기 중 실험실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하계와 동계 방학 모두 연구 인턴십에 참여하였습니다. 그전에는 방학에 대외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주로 했고, 교육 프로그램을 듣기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보았는데, 저의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나만의 연구를 구체화해 보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실험과 연구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면, 이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보길 권장합니다.

(질문) 프로그램 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답변) 이 프로그램에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학부생으로서 대단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제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든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보고서를 남김으로써 이 경험이 단순한 참여가 아닌 연구자로서의 진짜 연구 활동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보고서들을 다시 찾아보며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값지게 느껴집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준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 내용이 있다면?

(답변) 프로그램 종료 후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진학하여 임상보건영양빅데이터 실험실에서 영양학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6년~2023년 자료를 활용하여 가정식 섭취 실태 파악 및 다빈도 섭취 음식을 분석하고 식생활 정책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발전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한지 얼마되지않아 구체적인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는 제 연구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2024학년도 국제협력 해외봉사 외성챌린지 프로그램 감상문



진경열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학생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협력 해외봉사 외성챌린지 개요

가. 행사목적

- 1) 대학혁신지원사업 글로벌 문화 다양성 기반 사회기여 확대 및 국제 협력 사업으로서 해외 봉사활동 시행
- 2)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봉사 마인드 함양
- 3) 해외 봉사활동을 통한 재학생 대학 생활 만족도 향상

나. 행사내용 : 필리핀 빈민촌 방문 노력봉사(집짓기) 및 교육봉사

다. 기간 : 2024년 7월 1일 ~ 7월 11일(11일간)

라. 장소 : 필리핀 민도로 망안부족마을

마. 참가학생 : 36명

준비하면서 느낀 점

국제협력 해외봉사 외성챌린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봉사활동을 떠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태도를 성찰하는 중요한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참여를 결심했지만, 실제로 준비에 들어가면서는 그 이상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지의 문화, 생활환경, 언어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이 단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평등한 관계의 파트너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의 전 과정은 ‘팀워크’와 ‘소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맡고 함께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봉사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팀원들과는 어느새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생겼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프로젝트 이상의, 사람 간의 연결과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 일정 및 활동 내용

우리는 필리핀 민도로 섬에서 약 10일간 머물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중심에는 망안 부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활동이 있었는데, 이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직접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망안 부족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봉사활동으로 한글과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마지막 날에는 그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례모니를 준비하며 마무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다면 짧은 일정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진심이 담긴 활동이었고, 단순히 ‘무언가를 해주었다’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나누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만큼,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활동사진



2024학년도 국제협력 해외봉사
외성챌린지 프로그램



다녀오고 느낀 점

필리핀 민도로 섬에서의 열흘은 제 삶에 있어서 단순한 경험을 넘어선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 불편한 조건, 그리고 언어 장벽은 분명 도전적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었기에 나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강렬하게 느낀 것은 바로 '나눔의 가치'였습니다. 집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건넨 작은 도움은 분명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웃음과 환대는 제가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함께 일해준 주민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의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가치관을 바꾸었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이 끝난 뒤 팀원들과 함께했던 반성의 시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기타하고 싶은 말

해외봉사라는 경험이 단발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학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특별한 추억과 배움을 얻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소중한 방향타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다음 기수로 참여하게 될 학생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이자 인생에 대한 성찰의 기회라는 점입니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작은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만 갖춘다면, 이 프로그램은 분명 여러분에게도 잊지 못할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전반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프로그램이었지만, 봉사 활동의 여운이 진하게 남았던 만큼 조금 더 일정이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보다 여유 있게 활동하고, 더 깊이 교류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육봉사 준비와 관련된 사전 자료나 워크숍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공된다면, 처음 참여하는 학생들도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함께
일해준 주민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의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함께한 성장 여정: 밝은 미래를 꿈꾸는 창의적 엔지니어로



박건후

울산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전기전자공학
재학생

▮ 나의 UCTL 여정의 시작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더불어, 여러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 2학년 학생으로서, 이러한 시대에 적응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진로에 대한 여러 고민이 생기게 되었고, 저 자신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신관 지하 1층에서 우연히 교수학습개발센터(UCTL)의 프로그램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제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UCTL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제가 꿈꾸는 진로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로 다가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경험한 UCTL의 프로그램과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 혁신적 학습법을 통해 학습 전략을 세우다 : 학습법 세미나

우리는 전공 수업과 더불어 교양 수업, 과제 및 시험 대비, 자격증, 대외활동 등 개인 역량 증진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시간 배분이 요구되었고, 저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UCTL에서 진행되는 ‘학습법 세미나’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며,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여해 강사님께 얻은 키워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간 관리 전략입니다. 하루 24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사님 말씀처럼 우측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매일 스터디 플래너와 타이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기 전, 다음 날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고, 스터디 플래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매일 규칙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나 자신과의 약속’을 통해 철저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학습법 세미나’

프로그램을 통해

저 자신은 내면적으로도,

학습관리 측면에서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프로그램을

울산대학교 학우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사례를 들어, 친구들이 “피시방에 가자, 혹은 놀러 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플래너를 확인하고, 다른 일정이 생기는 것을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계획대로 도서관으로 이동해 오늘 해야 할 학습과 과제를 이어가고, 성공적으로 전공과목에 대한 학습과 함께 예습 복습 과정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실제로 학습했던 해당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학습법 세미나를 통해 제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례로 석차 1등을 받는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왜 1등을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부러움과 더불어 좌절감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미나를 수강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저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목표를 향해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 강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비교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항상 비교하는 삶이 아닌 제가 추구하는 목표와 더불어 매일 플래너를 작성하고, 내 목표를 이루고 긍정적인 사고를 꿈꾸게 되었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학습 동기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미나 이후 학교생활과 더불어 다양한 대외활동 및 공모전에서 울산대학교 학생 신분으로 참여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세미나 이후,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외활동에 참여 (울산대학교 학생 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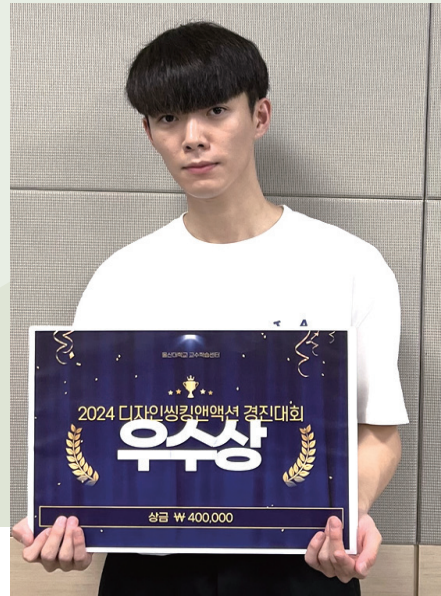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학습법 세미나’ 프로그램을 통해 저 자신은 내면적으로도, 학습관리 측면에서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경험한 이 프로그램을 울산대학교 학우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한 학우분들과 앞으로의 목표를 향한 밝은 미래를 꿈꾸고자 합니다.

▮ 창의성을 발현시키다

: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를 통한 공학문제 해결

‘창의성’이란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특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공과목을 수강할 때도, 과제를 하거나 사회 문제를 직면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도, 다양한 상황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빈번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도에 설계 기초 과목을 수강하면서, 역량을 키워 ‘사회 문제 해결을 돕는 창의적인 설계 작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후, 24년 여름학기에 진행하는 UCTL 프로그램 ‘디자인 씽킹액션’을 알게 되었고, 학우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교류하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자 참여하였습니다.

●
문제를 공감,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노면 경고시스템’ 사례와 같은
기준에 존재하지 않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타 학과 분들과 조 단위로 편성되었습니다. 저는 6조의 씽크탱크 팀 조장을 맡아 팀원들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하며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AI 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고, 강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를 이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 관점과 다른 팀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제 사고의 영역 또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내 의견을 다른 학우분이 수용하면서, 최상의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또한 도출되었으며 다른 학우분들과 하나가 되어 창의적인 사고의 폭을 넓혀가는 계기로 다가왔기에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희 조는 의견을 교환하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은 '교통안전' 분야를 떠올리게 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수업 이후에 도서관 스터디룸을 신청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문제를 공감,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노면 경고시스템' 사례와 같은 기준에 존재하지 않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해 공모전에서 수상할 수 있는 경험을 이루었고, 조원들과 기쁨을 나누는 소중함 또한 경험할 수 있었기에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향해 꿈꿀 수 있는 울산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을 권장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함께한 성장 여정: 밝은 미래를 꿈꾸는 창의적 엔지니어로

UNDERSTAND (주제 선정서 겸 구성)
 임 이름: **성오랑크 (Hank Rank)**

1. 팀 리더 우리 팀을 잘 이끌어 주실 리더를 먼저 뽑아주세요.
박건록

2. 팀 구성 팀원들의 역할을 정해주세요. (가제자, 사한재가, 탁일기(사간관리), 송원단장, 대변인 등)

- 선선재 (사간재가)
- 박건록 (리딩리퍼)
- 조민지 (기록자)
- 노정민 (응원단장 대변인)

주제 너무 광범위하거나 구체적이지 않게 작성하세요.
AI 인공지능 흐름

그라운드 룰 프로젝트 기간 동안 팀원들과 함께 지켜 나갈 규칙을 작성하세요. (모스틱에 작성하여 붙여주세요)

- 적극적인 참여!
- 긍정적인 자세!
- 자신의 의견 알리기!
- 자신의 의견 알리기!
- 자신의 의견 알리기!
- 자신의 의견 알리기!

**바치지 않고
명확적 밝기**

**적극적인 참여
자유롭게
의견 제시**

**낙천적인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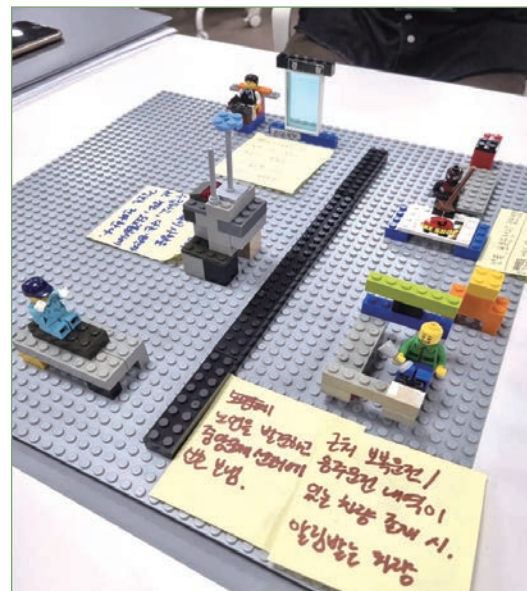
[11만원]

나의 신청내역

프로그램 일정	상태	비고
(2024-여름학기) 디자인경영연역선 2024.07.02(화) 09:00 - 2024.07.11(목) 15:00	참여승인	설문조사 미수중 신청사수정 신청취소

세부내용

♥디자인씽킹액션으로 경진대회와 대외 공모전에 참여하기!♥
 상 디별로 받을 거지!



학생사례

Student case

작은 변화가 불러오는 나비효과



박나영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재학생

2024년 2학기에는 들어보고 싶었던 강의도 신청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보고 학습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뿐만 아니라 그 외 팀원들과 팀으로 된 활동들도 참여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글동말동(글말스쿨 동아리)였다. 글동말동 동아리는 처음은 아니었고 그전에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동아리 중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에 신청해서 활동할 수 있는 형태였었는데 각기 다른 학과와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낯설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치를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그 이후에 참여했을 때는 특정 주제에 대해 마음 맞는 친구들과 직접 동아리를 구성하고 꾸려서 활동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새롭고 처음 활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재미있었고 남달랐던 것 같다. 보통 동아리는 이미 꾸려진 다양한 동아리를 보고 내가 관심 있는 동아리를 찾아서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는데 글동말동에서는 글쓰기, 토론, 미술, 영화, 스피치, 전자책 출간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제한 없이 두고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대략 한 학기 동안 운영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 나랑 잘 맞을까 고민되는 사람이라면 글동말동을 경험해 보길 추천하고 싶다. 대학교에 오면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지만,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 마음과 더불어 진짜 내가 동아리를 하고 싶은 건지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싶은 건지 생각이 들 때가 있었고 그때 한 학기 동안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글동말동 동아리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아리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번 활동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나에게 적용하고 싶고 삶에도 영향을 미친 한 학기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줬던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처음에 서로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된 관심주제를 동아리 활동 주제로 정했는데 그게 환경과 독서였다. 환경과 독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환경과 독서를 결합해서 할 수 있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이 없을지 고민하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다. 환경 관련 책을 읽은 것을 바탕으로 환경을 위한 실천법안 구성, 환경에 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토론, 기사 스크랩&정리, 마인드맵 정리법, 환경 책 읽은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독서 노트(필사,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낀 점, 포스트잇 활용 독서법),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를 위한 만다트라 계획표 세우고 실천, 독서 업 작성 등의 활동과 환경에 대한 영화를 보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관련 영화를 선정하고 토론하고 영화 원작 소설과 비교, 영화 인물 분석, 주인공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하고, 책의 인상 깊은 구절 필사, 퀴즈를 만들어 서로 맞춰보고 북 트레일러를 제작하는 활동 등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최종적으로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만들면서 환경 기념일(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 푸른 하늘의 날 등)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활동 과정을 짐작하고 활동 결과물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카드뉴스를 만들면서 처음에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했던 목적과 의지로 주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면서 나온 결과물이라 더 뜻깊었고 뿌듯하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스스로 얼마나 변화했고 성장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 글을 써보는 시간과 동아리 활동에 대한 소감에 대해 써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꽤 많은 것이 변화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했다고 느꼈다. 2학기 때 환경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더 관심이 생겼었고 바쁘다 보니 전보다 독서량이 확연히 줄고 책을 읽는 습관을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라도 더 시간을 내서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리고 과거에 내 독서습관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책을 읽고 거기에서 끝났던 것 같다. 그 이후에는 읽은 책을 다시 읽지는 않았는데 다시 읽었던 경우는 책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읽었던 경우 외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독서노트 활용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나의 순간적인 생각을 기록하고 책의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같은 책을 다시 읽더라도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과거의 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더 풍부한 독서를 하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책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때 펼쳐면 다시금 생각이 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각노트라고도 할 수 있는 독서노트들이 쌓여서 나중에 펼쳐본다면 다양한 시각과 내가 몰랐던 이면도 알 수 있는 생각자선이 될 것 같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독서노트를 가치와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고 또 현재도 독서노트를 활용하고 있다. 예전이라면 독서노트를 왜 써야 할지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직접 경험해보고 느낀 것은 행동의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느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독서노트의 가치와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고

또 현재도 독서노트를

활용하고 있다.

미세먼지, 과거에도 심했다고? (이미지의 환경수다)

작성일 : 2022.07.13 08:00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02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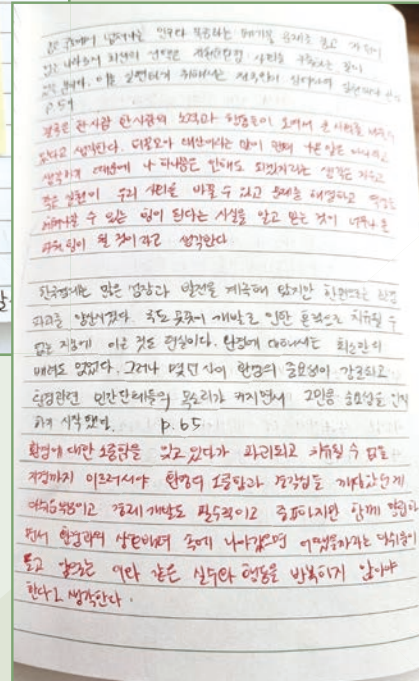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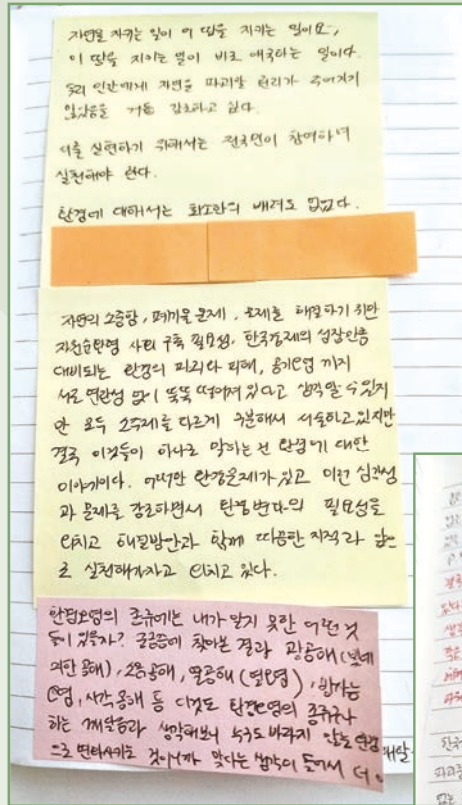
02 04

02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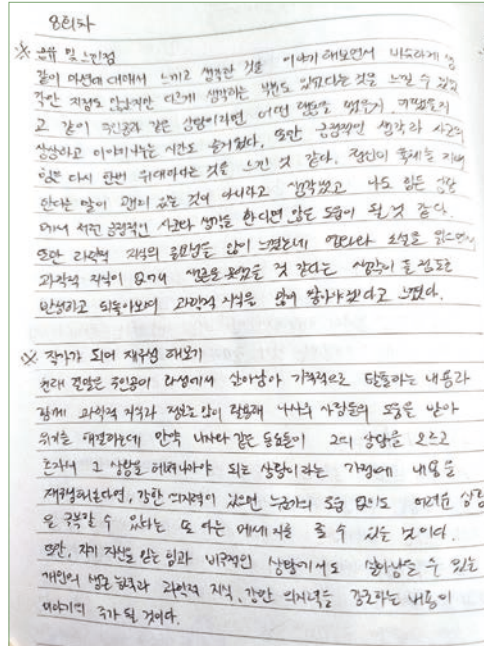
요약: 미세먼지는 맑은 물과 10년전만큼 소수의 기자나 학자뿐만 아닌 말이었는데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맑은 기사가 나왔고 그 원인은 중국의 미세먼지와 전장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2013년부터 급증한 것은 아니며 미세먼지는 과거에 더 심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과거에서 현재까지 꽤 오랫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꾸준히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역시 2022년에 전년보다 8%가량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했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감소하였다. 2020년과 2021년에는 2015년 중점 속성물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미세먼지 규제를 강화해온 부분도 크겠지만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느낀 점: 기사 제목을 보고 궁금함에 이끌려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일단 미세먼지라는 말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환경적, 사회적 이슈인 문제로 자리 잡았는데 이런 미세먼지가 언제부터 많이 생기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뉴스에 언급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갑자기 심해졌는지 정진적으로 분석해볼지에 대한 궁금증을 문득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기사 제목을 보고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사를 읽게 되었고 놀랐던 것은 과거에는 당연히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과거에 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더 높았다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가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진전되어 온 문제고 이후엔 것은 그 이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이유까지 있었지만 진전되고 악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있지 않을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환경의 오염은 또 다른 오염을 낳는다는 말처럼 환경을 지킬고 가꾸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책상이나 공부의면에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될 것이라는 사실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 뿐 아니라 휴식공간에서 나오는 일산화, 인산화물에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들은 물질들이 대기 중에 배출되면 다른 물질과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때때로 미세먼지를 단 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각 분야의 노력에 동참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휴식을 금치 않는 것보다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줄일 수 있는 방안, 함께 증명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변화가 불러오는 나비효과



● 포스트잇 독서법,
독서앱 활용, 마인드맵 등
다양한 독서법을
시도해 보고 나에게 맞는
독서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즐거웠고 동아리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다양한 독서법을 시도해 보고
찾을 수 있었겠느냐는
생각을 한다.



위의 사진들은 글동말동 동아리 활동에서 한 활동과 기록물 중 일부인데 앞으로도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독서노트를 활용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정도로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경험해 보고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느낀 것들을 생각해 보고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좋은 변화와 성장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또한, 포스트잇 독서법, 독서법 활용, 마인드맵 등 다양한 독서법을 시도해 보고 나에게 맞는 독서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즐거웠고 동아리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다양한 독서법을 시도해 보고 찾을 수 있었겠느냐는 생각을 한다. 환경과 독서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련 영화를 통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고

동아리원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랜만이어서 되돌아보면 소중한 경험인 것 같고 여러 새로운 시도와 경험으로 변화하고 풍부하게 한 학기를 만들어준 것 같다. 동아리는 이번 학기에 마무리되었지만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독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해 보고 공유해볼 수 있는 동아리나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직접 실행해 보지는 못했는데 이번 동아리 활동을 통해 조금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면이 부족한 편이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한다면 나에게도 작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 또한 이 작은 변화가 더 큰 발전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노력해하겠다고 생각한다. 글동말동 활동을 통해 독서습관의 변화와 발전, 환경에 대한 공부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경험의 중요성,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시각의 접근과 생각의 발전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처럼 삶의 작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싶고 그게 쌓여서 나중에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함께 빛나는 길, “빛길” 봉사단에서 찾은 배움과 성장의 가치



김윤아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봉사단
“빛길” 단원

▮ [학생봉사단 “빛길”] 함께 만드는 빛나는 길, “빛길”과 함께한 3년

대학교 입학 후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막막함을 느끼던 중, 을지 한마음봉사단은 저에게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고, 봉사에 뜻을 같이하는 재학생들이 주축이 된 학생봉사단 “빛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청소년 위원회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온 저는, 대학에서도 봉사를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2023년 을지 한마음봉사단의 학생봉사단 “빛길”에 입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활동을 이어갈수록 봉사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깊고 풍부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다

학생봉사단 “빛길”은 을지대학교 재학생이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봉사단입니다. 저는 2023년 홍보부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2024년에는 홍보부장을 맡았으며, 현재는 3년 차 단원으로서는 후배 단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바뀔수록 봉사를 바라보는 시야도 점점 넓어졌고, 그에 따라 책임감 역시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후배들에게 봉사단을 소개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성장한 스스로의 모습에서 큰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활동 중 특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은행 메이커스’ 만들기 수업과 1:1 멘토링 정기 봉사입니다. ‘은행 메이커스’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석고 모기 퇴치제 만들기, 뼈빠로 만들기 등 다양한 만들기 수업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활동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수업에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몰입하는 모습을 보며, “봉사란 나와 상대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구나”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서, 자료를 제작하고 물품을 준비하며 예산을 고려해 팀원들과 협력하는 모든 과정을 저희 손으로 해냈기

때문에 더욱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 있는 활동은 ‘멘토링 정기봉사’입니다. 1년 동안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멘티로 삼아 주 1회 영어 학습을 도왔습니다. 학원을 다니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멘티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 했고, 저 역시 처음엔 막막했지만 매주 수십 장의 자료를 만들며 진심을 다했습니다. 단어 카드, 문법 정리, 듣기 연습 문제는 물론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영어 게임과 퀴즈도 준비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받았고, “이것이 진정한 봉사의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 아이가 “이젠 영어가 재밌어요”라고 말할 때, 봉사는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는 사실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 은행 메이커스 석고 모기 퇴치제 프로젝트 회의

●
저희가 준비한 수업에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몰입하는 모습을 보며, “봉사란 나와 상대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구나”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 대학생 멘토단·중학생 멘토링

●

**“빛길”에서의
 활동을 통해 저는
 ‘봉사는 나누는 만큼
 나를 더 크게 만든다’는
 진리를 체감했습니다.
 나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 **함께 빛나는 학생봉사단 “빛길”에서 찾은 배운과 성장의 가치**

“빛길” 활동은 정기 봉사 외에도 다양한 행사로 이어집니다. 학교 축제나 입학식 시즌에는 봉사단을 소개하는 부스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포토존을 꾸미고 풍선과 굿즈를 제작하며 ‘봉사단’의 이미지를 밝고 따뜻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홍보부의 일원으로 카드뉴스, 홍보 포스터, SNS 게시물 등을 직접 제작했는데, 특히 제가 만든 포스터를 보고 누군가가 봉사단에 관심을 갖고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상상 이상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시작을 이끌었다’는 것은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홍보부장으로서 팀원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회의, 작업 분담, 기획안 작성 등을 조율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리더십이란 단순히 앞에서 이끄는 것이 아닌,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팀워크 속에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책임감을 키워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함께 나누는 만큼 성장하는 우리**

“빛길”에서의 활동을 통해 저는 ‘봉사는 나누는 만큼 나를 더 크게 만든다’는 진리를 체감했습니다. 나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과 방향도 스스로 그려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진심으로 연결되는 봉사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소통 중심의 봉사’를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봉사, 소외 계층과의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 재학생을 모집해 함께한 연탄 봉사



▲ 직접 디자인한 봉사단 스탬프 도안



▲ 2025년도 "빛길" 4기 발대식

2025년 학생봉사단 “빛길” 4기 발대식, 또 다른 시작

올해는 4기 발대식에 참여하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발대식이지만, 해마다 새로운 얼굴들을 마주할 때마다 제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설렘과 호기심, 두 번째는 더 잘하고 싶다는 다짐, 세 번째인 지금은 선배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올해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질까’ 하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신입 단원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저도 처음 "빛길"에 들어왔을 때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후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발대식 이후 ‘나는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까’를 스스로 많이 고민하게 되었고,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봉사’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밝게 웃는 얼굴들처럼, 앞으로도 울지 한마음봉사단의 학생봉사단 “빛길”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 빛나는 길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한 해도 “빛길”과 함께 더 큰 나눔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융합 예술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대학혁신 서포터스 '추비즘' 창단



도지윤

추계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4학년

추계예술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2024년부터 융합 예술인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타 대학과의 예술 교류(예수대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 찾아가는 거리 미술관 '잠깐 멈추계' 슬로시티 전주), 해외 탐방 St.ART Challenge! (1기 이탈리아, 2기 하얼빈) 추진 등 예비 예술인들이 사회를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더 가깝게 만나기 위해 1인1동아리 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던 '추비즘'이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공식 서포터스로 승격해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총장, 학생, 졸업생, 교수, 직원이 모두 함께 하는
학생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밀착 지원 서포터스 '추비즘'



‘추비즘’은 <cubism>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추계만의 예술을 보여준다는 의미의 <chubism>이 되었습니다. [신입생 중도 탈락 방지]를 가장 큰 슬로건으로 개설되어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교, 전공 생활의 즐거움을 알려주기 위해 생겨난 동아리는 서포터스로 승격된 후에도 ‘3주기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커피차’ (2회),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공식 서포터스 추비즘 발대식’ 등 그 취지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인원 80명, 전교 신입생 250명 중 29명(약 11%)이 소속 되어있습니다. 교내 동아리 중 가장 큰 몸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신입생의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1인 1동아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추비즘’은 ‘전공 간의 교류’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 타 전공 학생들과 함께 성과를 내길 희망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주관한 ‘산불 피해 조기 회복을 위한 파이팅 기부금 모금 챌린지’ 행사는 ‘추비즘’이 처음으로 참여한 공식 행사로 ‘응원 네 컷 디자인’, ‘팸플렛 제작’, ‘스케치 영상’ 업로드와 ‘행사 현장 도움’ 등 추비즘 학생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과의 교류를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약 100명의 학생이 참여한 행사는 25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 사랑의 열매에 기탁, 응원하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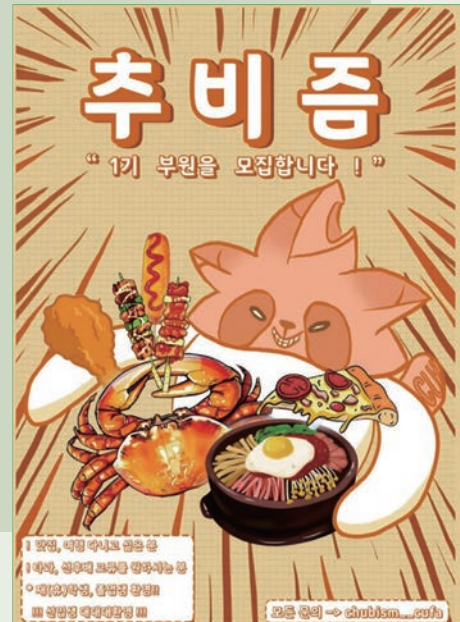
그 외에 3, 4월 활동으로 신입생과 함께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맛집 탐방 지도 제작과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한 광복 80주년 기념 영상 제작, 선후배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도모하여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예술제 부스 기획 등 서포터스가 더 나아갈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예술제, 추비즘이 떴다! 농활, St.ART Challenge! 3기 활동 도움 등으로 끊임없이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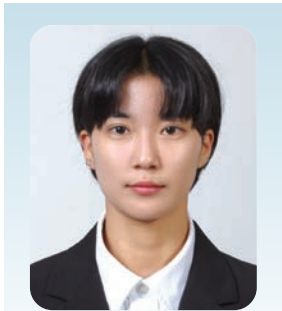
저는 과 후배들을 위해 이 동아리에 들어왔습니다. 선배, 타 학과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시점이었습니다. 교양 수업이나 학생회를 통해 학교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도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추비즘' 동아리가 창단되었습니다. 학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저도 함께 가입 후 후배들과 커넥트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서포터스로 승격된 후에는 전공을 살려 추비즘 내에 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는 임원진 중 한 명이 되어 제가 더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추비즘의 ‘즐거운 학교’, ‘전공 간의 교류’라는 이야기들을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 구체적이고 활동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반수를 희망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학교에 정들어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
 ‘추비즘’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신입생들과 함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인미디어 맞춤형 플랫폼, 「Boo's Booth (BB)」 본격 운영



박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지원팀
 담당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혁신원(원장 강유덕)은 디지털 콘텐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학내 구성원 누구나 쉽게 영상·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Boo's Booth (BB)」의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캠퍼스 인문과학관 1층에 마련된 「Boo's Booth」는 고성능 촬영·녹음 장비와 전문 소프트웨어를 갖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부스로, 보다 체계적인 환경에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오픈식 스케치 영상

Boo's Booth (BB) 명칭
 공모전 시상식



▲ Boo's Booth (BB) 오픈식 현장 사진



지난 3월 20일에는 총학생회와 공동 주관으로 오픈식이 열렸으며,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Boo's Booth'의 공식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우리 대학 마스코트 ‘Boo’ 처럼 많은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 명칭 공모 수상자 홍준혁 (영어교육과 20)

앞으로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구성원 모두가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혁신적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운영 방식

- 운영 시간: 매주 월~금, 10:00 ~ 19:00
- 위 치: [서울캠퍼스] 인문관 1층 (우체국 앞)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211호 앞
- 이용 방법: [서울캠퍼스] 교수학습개발원 3층 스튜디오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이용 가능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211호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이용 가능
- 설치 장비: 4K 카메라, 삼각대, 편집용 PC, 조명, 배경색지, 레코더 기기, 마이크, 모니터링 TV 등
- 설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Adobe Creative Cloud,  Studio One 5 등



▲ 서울캠퍼스 Boo's Booth (BB) 외부사진



▲ 서울캠퍼스 Boo's Booth (BB) 내부사진

▮ 향후 계획

- 「Boo's Booth (BB)」는 2022년 글로벌캠퍼스에 먼저 도입되어 「YouTube Studio Booth」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약 530건의 콘텐츠가 제작되며, 높은 활용도를 보여왔다.

글로벌캠퍼스 「YouTube Studio Booth」 2022~2024 대여 현황

연도	대여건수	주요 활용 용도
2022	103건	외국어 녹음, 강의영상 제작, 과제 제작, 수업 내용 실습, 유튜브 영상 제작 등
2023	230건	공모전 촬영 및 편집, 과제 제작, 음성 녹음, 음악 녹음 유튜브 영상 제작, 방음부스 이용 등
2024	197건	동아리 영상 제작, 포트폴리오 제작, 개인 기록영상, 강의콘텐츠 제작 테스트, 방음 부스 이용 등

▶ 총 3년간 약 530건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며 활발히 운영 중

이후 명칭 공모전을 통해 「Boo's Booth (BB)」로 새롭게 이름을 정비하였으며, 이번 서울캠퍼스 운영을 시작으로 학생과 교원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교육혁신원은 구성원의 수요에 맞춰 제작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콘텐츠가 꾸준히 제작될 수 있도록 수요 충족과 장비 확충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Boo's Booth (BB)」가 학내 디지털 창작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Boo's Booth(BB) 이용 안내



Boo's Booth(BB) 란?
실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 스튜디오 장비를 부스에서 손쉽게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Boo's Booth(BB) 1.

- 동영상 촬영
- 합성촬영
- 실시간 스트리밍
- 비대면 학습콘텐츠 제작

Boo's Booth(BB) 2.

- 어학자료 제작
- 언어 녹음 교정
- 고품질의 음성녹음
- 음원 콘텐츠 제작

UCC조형실 편집시스템 지원

-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담당 부서 : 교육지원팀(글로벌)
전화 : 031-330-4517 / 4881

- 운영시간 : 10:00~22:00
- 위치 :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211호 앞

글로벌캠퍼스 교무처 교육지원팀

▲ 글로벌캠퍼스 이용안내 포스터

Boo's Booth OPEN!



Boo's Booth (BB) 란?
실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 스튜디오 장비의 소프트웨어(Adobe, Studio One 5) 방음부스를 손쉽게 이용하는 공간!

운영시간	10:00~19:00 [2025. 3. 23(월) ~]	×
부스위치	인문관 1층 우체국 맞은편 (서울캠퍼스)	×
대여방법	[방문 신청] 교수학습개발원 3층 스튜디오 신청서 작성 후 대여	×
담당부서	교육지원팀 ☎02-2173-3307 ☎02-2173-2617	×

▲ 서울캠퍼스 이용안내 포스터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서포터즈
활동
소감문

수도권1팀



단국대학교 김연우

대학지원혁신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로 선정되어 정말 기쁘고, 동시에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동안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오며, 정책과 사업 내용을 대학생의 시선에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자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고민하고 구현해온 경험은 이번 활동에서도 큰 강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 관련 주제를 다룰 때에는 딱딱한 설명보다 대상자의 관심과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구성과 표현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체감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취지를 많은 이들에게 친근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팀원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수도권1팀



동국대학교 강민정

안녕하세요!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로 선발된 동국대학교 강민정입니다. 제가 지금 교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교내 단체 활동에서 더 나아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알리는 서포터즈로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뽑는 해당 서포터즈에 선발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학교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과 타 기업 서포터즈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교의 행사들을 알리며 보다 더 많은 대학생 분들이 풍요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개월 동안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1팀



단국대학교 김정민

안녕하세요!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로 함께하게 된 김정민입니다:) 이번 서포터즈 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참여를 넘어, 더욱 의미 깊은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영상 에디터로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현장과 소식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과 설렘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다양한 소식들을 쉽고 매력적으로 전달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이 사업이 대학과 학생들에게 가져오는 변화를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들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관심의 씨앗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따뜻한 영감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1팀



상명대학교 심예림

평소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콘텐츠 제작과 소통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의미 있게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수도권 대학의 혁신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각 학교의 특색 있는 활동을 재미있고 감각적으로 풀어낸 콘텐츠로 많은 이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보다 친근하고 흥미롭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임하며, 개인의 역량을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 순간 배우고 성장하는 서포터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1팀



송실대학교 조예지

1년 동안 본교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더 많은 학생에게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대해 알리고 대학의 다양한 변화를 가까이에서 경험하도록 돕고 싶어 총괄협의회 서포터즈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취지와 혜택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로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주어진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2팀



송실대학교 이서윤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로 선발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대학의 혁신 사례와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설렘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대학혁신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콘텐츠 제작, 인터뷰, 리포트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대학 간 협력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힘쓰겠습니다. 팀원들과의 협업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각자의 아이디어가 모여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2팀



단국대학교 김민주

안녕하세요.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수도권 2팀으로 활동하게 된 김민주입니다.
 먼저, 소중한 기회로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로서 함께 활동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내를 넘어 타교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대표하여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책임감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높은 전달력을 갖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동 임기 동안 기획한 콘텐츠가 담당 본교 재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기회의 연장선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5 총괄협의회 서포터즈 팀원분들과 좋은 추억을 쌓으며,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2팀



아주대학교 이지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입니다. 그동안의 교내외 서포터즈 활동과 콘텐츠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의 모습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2팀



한신대학교 유은빈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평소 학교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참여하고 홍보할 기회를 얻게 되어 뿌듯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의 변화와 성장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와 이야기들을 전해보고 싶어요. 책임감 있게, 하지만 재미있게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수도권2팀



한양대학교 박서영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로 선발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담당 학교의 혁신 성과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도 담당 학교의 혁신 사례를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하며, 글 작성부터 카드뉴스까지 다채로운 형식의 콘텐츠로 SNS 홍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대학혁신의 성과를 학생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고, 의미 있는 변화의 흐름을 현장에서 생생히 담아내겠습니다. SNS 콘텐츠 기획과 행사 취재 등 모든 활동에 열정을 다해 참여하며, 대학혁신의 가치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구·경북·강원권



건국대학교 노민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영위중인 전국 대학을 홍보하는 뜻깊은 역할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평소 대학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만큼, 이번 3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사업의 비전과 성과를 학생의 시선에서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교육 혁신의 현장을 생생히 조명하고, 더 많은 학생들과 가치를 나누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경북·강원권



계명대학교 강재희

안녕하십니까,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된 계명대학교 강재희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다양한 대학 혁신 사례를 직접 보고 배우며, 우리 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등 의미 있는 추억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며, 대학생의 시선에서 혁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경북·강원권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김 소 미

안녕하세요.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스에 함께할 수 있어 무척 설레고 기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제게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알게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학생들이 '나도 한번 참여해 볼까?'라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정보가 아닌, 쉽게 공감하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해 볼 생각입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큰 방향 전환점이 되기도 하듯, 누군가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꾸준히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을 담아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경북·강원권



포항공과대학교 무은재학부 박 선 영

안녕하세요. 포항공과대학교 무은재학부 박선영입니다. 교내 방송국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대학 축제, 학위수여식 등 주요 행사를 진행하고, 다양한 영상 콘텐츠에 직접 출연하고 기획·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과 콘텐츠를 기획하는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이번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 활동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살려, 더 많은 학생들이 유익하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다 친근하게 소개하고,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권



상명대학교 무용예술전공 강 다 현

4년간의 대학 생활, 그 끝을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로 마무리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혁신'이라는 키워드는 저에게 익숙하고도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변화에 민감한 예술 분야에서 공부해온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직접 경험하고 콘텐츠로써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제가 가진 경험을 나누고 동시에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함께 활동하게 될 다른 서포터즈들과의 많은 소통과 존중, 협업을 통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즐겁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충청권



선문대학교 정 인 혜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충청권 서포터즈로 선발된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인혜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선발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교내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이번 서포터즈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진정성 있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취지와 가치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아주대학교 박규빈

먼저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로 선발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저에게 소중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대학의 빛나는 내일을 향한 벅찬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캠퍼스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창의적 생각과 미래를 개척하는 도전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는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서포터즈로서 머무는 것이 아닌, 이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에 직접 참여하여 더 많은 학생들과 그 온기를 나누고 싶다는 열망이 이러한 기회로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라는 커다란 배가 '혁신'이라는 희망찬 목적지를 향해 순항하는 데 있어, 제가 작지만 의미 있는 '돛'이 되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권



한신대학교 정은서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발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에게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우리 학교를 더욱 빛나게 알릴 수 있는 학교 홍보의 연장선이자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타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더 넓은 범위에서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된 것은 제게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다양한 대학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에 대해 인식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활동을 통해 저 역시 한층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충청권



한국항공대학교 김지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된다.'
위 모토는 제가 홍보 블로그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며 깨달은 것입니다. 그저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하던 이전 아르바이트와 달리, 직접 성과를 올리며 '내가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것'에 집중한 계기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험을 살려 2025 서포터즈의 새로운 여정을 열게 되어 너무 설레이고 기쁜 마음입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앞으로 배워갈 일이 많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2025 서포터즈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은 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2025 서포터즈에서는 기존의 제 경험에 그치지 않고 더욱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남권



원광대학교 강여진

안녕하세요, 저는 입학 이후 꾸준히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진로 탐색, 역량 강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교내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체감했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호남권역 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팀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의미 있는 콘텐츠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남권



원광대학교 유민진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호남권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된 원광대학교 유민진입니다.

1학년부턴 여러 교내외활동을 해왔고, 작년 한 학기만 해도 학교 마일리지를 약 600점 가량 쌓을 정도로 대학생활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다보면 교내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적잖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아쉬기도 했는데, 이번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더 다양하고 유익한 대학교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풀어나가보고 싶습니다. 또한 소속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활동하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2025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호남권



차의과학대학교 안수아

안녕하세요.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된 안수아입니다. 서포터즈로 선발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저희 대학교가 아닌 타 대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정말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 또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항상 학생의 시선에서 출발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니즈를 살피는 서포터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울산·경남권



동의대학교 김지현

안녕하십니까대학입학후의미있는대학생활을해보자는마음가짐으로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던 해당 프로그램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교내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사업의 취지와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권유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총괄협의회 부·울·경남권 팀장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이 사업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알리고, 그동안의 서포터즈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가톨릭대학교 이채연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대학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맡은 바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며, 여러 경험과 배움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뜻깊은 한 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쓰는 서포터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울산·경남권



창신대학교 김지희

안녕하세요!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에 선발된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김지희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유익함과 많은 혜택을 제공해 주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홍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포터즈'라는 단어의 의미에 걸맞게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며, 많은 학생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과 함께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할 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포터즈를 지원할 때의 제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소중한 순간들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매 순간에 진심으로 임하겠습니다.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얻게 될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기대가 되고, 저에게 어떤 무궁무진한 변화들이 생길지 매우 설레기도 합니다. 앞으로 만들어 나갈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포터즈 단체사진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이주열 회장 개회사



▲ 서포터즈 소개와 활동 안내



▲ 개회사_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이주열 회장



▲ 등록 데스크 운영



▲ 축사영상_ 한국연구재단 허정은 학술진흥본부장

기조강연



▲ 김석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초대회장

권역별 분임토의



▲ 수도권



▲ 대구·경북·강원권



▲ 충청권



▲ 호남권



▲ 부산·울산·경남권

분임토의 결과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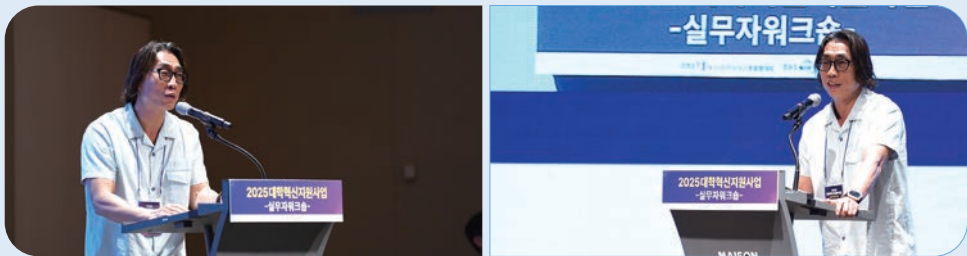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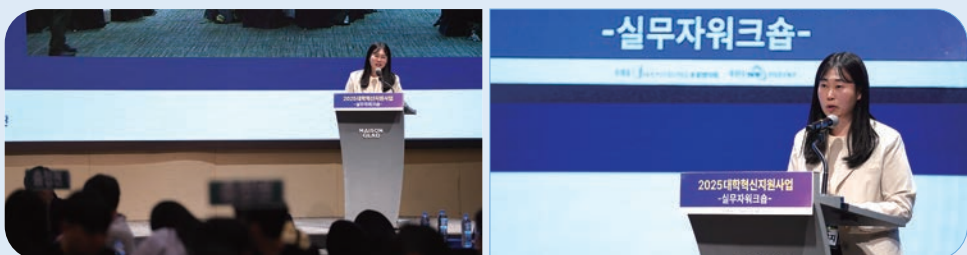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부산·울산·경남권





▲ 수도권



▲ 대구·경북·광원권



▲ 충청권



▲ 호남권



▲ 부산·울산·경남권

한국연구재단 특강



대학혁신지원사업 소식지
제24호 게재 원고 모집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소식지 통권 제24호 (8월호)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소식지 콘텐츠

대분류	주 제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사례	대학혁신지원사업 주요 성과사례
	COVID-19 환경 하의 대학교육혁신 사례
	기타(연구·교육·사회 공헌 분야의 대학 소식)
기 고 문	미래 고등교육혁신정책 아젠다(agenda)
	환경불확실성 시대(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의 대학교육 혁신전략
	국가발전(국가균형발전)과 대학의 역할
	기타(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 관련 주제)
행사소식	각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주요 행사
	기타 각 대학의 주요 행사안내

원고응모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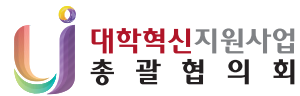
- ▶ 대학혁신지원사업 138개 회원교의 교원 및 직원, 학생
- ▶ 각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원고분량

- ▶ A4 최대 2매 이내로 제한

행정사항

1. 제출자료 : 원고 및 이미지 자료(원고 제출자의 사진 및 자료 사진 원본)
2. 제출기한 : 2025. 7. 18.(금) 17:00까지
3. 제출방법 : 원고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4. 제 출 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사무국 (이메일 : uispc0624@gmail.com)
5. 유의사항 : 해당 원고 공모 및 협조 요청은 희망자(대학)에 한하며,
제출 원고가 많을 경우 주제에 따라 게재여부 및 순서 등 조정 가능
6. 문 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사무국 055)320-3215/3216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50834)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PRIME의생명공학관 106호
TEL. 055)320-3216 FAX. 055)320-3207 E-mail. uispc0624@gmail.com